

## 담뱃값 인상... 다시 불붙은 증세 논란

1000원 올리면 연간 2조5000억 세입증가 효과  
정부 "흡연을 높아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결정"  
"서민주머니 털어 세수부족 메우기" 비판 불가피

정부가 10년 동안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증세 불가' 방침을 깨고 '우회 증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금원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달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히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은 10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각종 담뱃세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담배가격은 제조원가 및 유통비용 외에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1갑당 354원), 지방교육세(321원), 폐기물 부담금(7원)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5000억원가량의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포인트 낮아 약 8조5000억원가량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와 같은 세수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앞세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손쉬운 증세 수단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입기 내에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담뱃세 인상 배경을 '세수 확보'로 보는 시각에 대해 "우리나라 담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고 청소년 흡연인구도 걱정되지만 담배가격은 너

무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담뱃값 인상은 국민보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담뱃값이 오르면 국민건강 증진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인상되는 데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어 서민증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12일 전국 평균 1인당 4620원 선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도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간접세인 지방세를 올려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려는 '폼수 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건복지부 통계상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인 2005년의 8.5%보다 2.7%포인트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했다"며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지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10여년 동안 2500원을 유지했던 담뱃값(담뱃세 포함) 인상안을 두고 흡연자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담뱃값 인상폭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위한 인상이 아닌 증세 대책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금원대책' 공식 발표날인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직장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xfier@

## 쫓기는 삼성 스마트폰 저가형시장 1위 내졌다

2분기 글로벌 판매량

중레노버, 처음으로 삼성 제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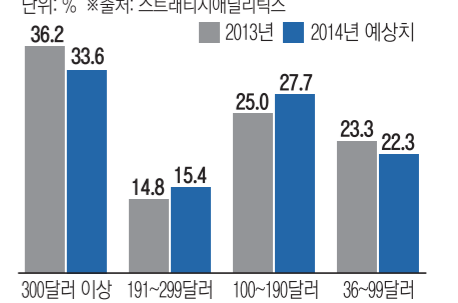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세계 보급형(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 업계에서는 무섭게 성장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위협해 온 만큼 '울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11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격대별 스마트폰 판매량 집계 결과 '저가(Entry-Tier) 시장'에서 중국 업체 레노버가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다만 SA는 보급형 시장의 실제 판매량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수년간 모든 가격대에서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세계 시장 1위 자리를 지켜왔다. 보급형 시장의 경우 수익성은 낮지만 점유율, 판매량 등의 부문에서 삼성이 큰 만큼 1위 수성에 힘써 왔다.

특히 최근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무게 중심이 프리미엄에서 보급형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 시장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SA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판매될 스마트폰 10대 중 7대가 300달러 이하 제품일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대당 200달러 이하의 저가형 제품은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총 3억134만대 중 1억5670만대(52%)가 대당 200달러 이하의 저가형 스마트폰이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업계는 이 같은 시장 변화가 삼성전자의 세계 1위 자리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로 풀

세계 스마트폰 시장 가격대별 점유율 추이



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저가형 스마트폰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이 보급형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만 앞세우던 과거와 달리 품질까지 갖춰 보급형 시장을 기반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샤오미가 지난 4월 이후 중국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중국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제품의 최대 수요처로 떠오른 만큼 스마트폰 중저가 라인업을 확대하고 LTE 통합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는 등 현지 시장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최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추석 연휴기간인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에는 이돈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최 실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최근의 스마트폰 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js62@



## 이번엔 '신제윤 vs 임영록' 충돌

신, 금감원 결정 번복 부담...임 "조직 명예회복 위해 소송불사"  
'KB 임회장 징계 수위' 내일 금융위 전체회의서 판가름 날듯



금융당국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확정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임 회장은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처분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영록 회장과 이견도 행정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KB사태가 최수현 vs 임영록을 넘어 신제윤 vs 임영록으로 변질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명동의 한 호

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선정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의사결정 과정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금감원에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황 조정했다.

그가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조직 안정을 위해서다.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를 세우는 기간 동안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은행을

비롯한 전 계열사가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드시 리딩뱅크를 탈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연일 그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정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는 것은 KB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욕심만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사 회장이 임 회장의 징계는 오는 12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로서는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계를

중징계로 상황 조정된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이 원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떠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경영진의 알력 다툼으로 임 회장은 금융권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줬다"며 "금감원에서 중징계로 상황을 따돌려 다시 경영계로 낮추기엔 금융위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만약 중징계가 원안 통과되면 소송으로 변질 가능성이 높다.

박석현 기자 sunhyun@x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놀고 먹는 국회의원 목도 많이 했습니다." 회사원 K씨(42세·서울)는 추석 연휴기간 가족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요약했다. K씨를 포함한 많은 시민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국회에 대한 비판이 주된 화제가 됐다고 답했다. 또 일부 직종에만 한정된 대체휴일제 혜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됐다.

정치권을 향한 추석 민심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게 시민과 여야 정치인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시민들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국적이 장기화하면서 국회 자체가 기능을 상실한 모습

## 추석 민심 꽃힌 곳은 387만원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에 대해 실망을 쏟아냈다. 국회가 '개정 휴업' 상태이면서도 국회의원 전원이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1인당 387만8400원을 받아 갔다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도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K씨(48세)는 "국회의원이 받은 추석 보너스가 웬만한 월급쟁이 1~2개월치 월급

아니냐"라면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받았다고 해도 탐탁지 않을 판인데, 싸움 박질만 하면서 그 돈은 챙겨갔다는 게 보기에 참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K씨는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 추석 처음으로 시행된 대체휴일제도 많이 회자한 이야기거리다. 관공

서, 공공기관, 은행, 병원,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은 혜택을 보았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해 회비가 엇갈렸기 때문,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급여나 복지 수준도 대기업보다 열악한데 이제 쉬는 날까지도 양극화가 생겼다"며 '반쪽짜리' 대체휴일제를 성토했다.

IT 주변기기 제작업체에 근무하는 L씨(40세·용인)는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하루 먼저 출발했다"며 "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정해 두긴 했지만 우리는 물량이 들어오면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남의 얘기일 뿐이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숫자로 본 NEWS

**국정 전반 불만족 69%**  
경제 상황 나쁘다 65%

주요국 국민 국정 불만족도 (단위: %)

미국	62	러시아	36
일본	60	말레이시아	20
영국	55	베트남	12
독일	38	중국	8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2.8% 14년째 OECD 1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 (단위: %)

\* 유치원·초·중·고등교육단계와 교육행정기관 교육비 포함, 2011년 기준

전체	7.6	6.1
민간 부담	2.8	0.9
정부 부담	4.9	5.3

한국 OECD 평균

**국정도 경제도 "만족 못해"**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정 전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이 나쁘다고 인식했다. 앞으로 1년 후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3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국 등 세계 44개국 성인 4만86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최고**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정부 부담률은 평균에 미달하는 등 여전히 공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인 0.9%보다 3배 이상 높은 2.8%였다. 김부미 기자 boomi@

목요일 17~21일

커버스토리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정용동 대표 ▶ 서진원 행장 ▶ 13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 권오규 전 부총리, 美 스타우드캐피탈 자회사 발백코리아 대표에 인생 3막... '온고지신' 리더십 통할까

### 2008년 관료생활 마무리 후 카이스트 초빙교수로 IB·사모펀드 정통... 정부 정책 시장 적용에 주목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66·사진)이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이사로 인생 3막을 열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권 전 부총리는 고위 관료에서 교직으로, 그리고 다시 투자은행(IB)업계로 자리를 옮겨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권 전 부총리는 최근 미국계 부동산 금융그룹 스타우드캐피탈의 자회사 발백코리아 대표이사로 영입됐다.

스타우드캐피탈은 글로벌 부동산과 에너지 부문에 투자하는 회사로 운용자산은 총 37조원 규모다. 발백코리아는 스타우드

캐피탈그룹이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설립한 현지법인이다. 발백코리아는 아시아 지역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NPL(부실채권), 기술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권 전 부총리의 스타우드캐피탈행을 둘러싸고 파격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부총리급 고위 관료 출신이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로 변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 전 부총리 본인 입장에서는 이 같은 파격 행보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08년 33년6개월의 관료 생활을 정산한 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

수로 변신하면서 후학 양성의 길로 들어선 바 있다. 당시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산하 기관이나 로펌에 등지를 트는 것과는 대조적인 파격 행보였다.

업계에서는 권 전 부총리가 공직에 재직할 당시 업무를 투자회사에서 어떻게 연관시켜 이끌어 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권 전 부총리는 지난 2007년 부총리 시절 IB를 육성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권 전 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재직 시절 대외협력국에서 미국을 담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에 파견된 경험도 있어 IB, 사모펀드 업계에 정통하다. 이에 현장에서는 권 전 부총리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르노닛산 잇단 인재 유출에 곤 회장 세대교체계획 뼈곳

카를로스 곤(사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르노닛산에 인재 유출이 잇따르면서 세대교체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르노닛산에서 지금까지 1년간 곤 회장의 곁을 떠난 주요 임원이 4명에 이르며 그중 곤의 후계자로 꼽히던 사람들도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시즈오카현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지난 7월 27일 엔디 파머 당시 닛산 부사장은 스포츠카 '페어레이디 G'로 질주를 마친 뒤 "닛산에도 자동차 사나이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국 출신의 파머 부사장은 1995년 영국 로버그룹에서 닛산 유럽 자회사로 이직하고 나서 경영 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해 곤의 신망을 얻었다. 사교적인 성격으로 사내 평판도 좋았으며 지난해 겨울 상품전략 총괄 책임자에 취임하고 나서는 닛산의 얼굴로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다. 그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계 자동차업계의 세대교체에서 닛산이 뒤처지는 것이 간부 유출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곤이 닛산 회생을 위해 투입된 시기는 지난 1999년이다. 15년이 흐

# 정용동 대표 '토종 종자기업' 위상 살린다

(농우바이오)

###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농협 계열사에 편입 작년 취임때 "글로벌 톱10"... 24일 새비전 발표

종자기업인 농우바이오의 단독 대표로 올라선 정용동(사진) 대표가 농협 계열사 편입을 계기로 회사를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휘청거렸던 '토종 종자기업' 농우바이오가 제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우바이오는 오는 24일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계열사 편입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 대표는 농협 계열사가 된 농우바이오의 향후 비전과 목표, 계획에 대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 대표가 이날 기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사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인 농협의 자본력이 들어오는 만큼 국내 대표 종자기업인 농우바이오에도 향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우바이오는 2012년 기준 국내 매출 600억원, 종자 수출 1500만 달러를 달성한 국내 대표 종자기업이다. 특히 채소 종자 시장 규모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

에서는 올해 현지법인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4% 늘어난 2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함께하는 일류 회사'를 표방하며 오는 2020년까지 국내 매출 890억원,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우수 인재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글로벌 톱 10 진입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각오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농우바이오가 농협 계열사로 정식 편입된다면 이 같은 정 대표의 장기적 전략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지난 1일 창업주 고(故) 고희선 명예회장의 부인 유연희 대표의 사임으로 기존 각자 대표 체제가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 만큼, 정 대표에게 실리는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 계열사 편입, 단독 대표 체제 전환 등으로 정 대표의 권한과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농협 계열사로 편입된 첫해인 만큼 과도기적 시기를 정 대표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농우바이오는 창업주 고 명예회장 사후 1300억원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오너 일가가 지분 전량을 매각한 사례가 있는 기업이다. 사업적 측면이 아닌, 상속세 등 사업 외적 측면에서 휘청였던 만큼 집체했던 회사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도 정 대표가 농협 계열사 편입 1년차에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증권업계에선 농우바이오가 농협 계열

사로 편입됨에 따라 향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농협이 비료기업인 남해화학, 농협케미칼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농우바이오 인수로 비료, 농약, 종자 등 3대 농자재를 모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농우바이오가 향후 고가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 최근 1년간 주요 50대 CEO 4명 회사 떠나 낮은 보수·카리스마 경영... 후계자 재목 없어

러나 자동차 경주장에서 의욕을 보인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일 그는 영국 고급 자동차업체 애스턴마틴의 CEO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여름휴가 동안 이직을 결정해 곤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고했다.

강력한 곤의 후계자였으며 르노닛산의 2인자이던 카를로스 타바레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푸조시트 로엔의 CEO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7월에는 닛산의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를 책임지던 요한 드 나이슨 사장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산하 캐딜락 CEO에 올라 회사를 떠났다.

최근 르노닛산에 떠난 고위 임원들은 50대 중반으로 회사 경영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연령대다. 이들 인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르노닛산의 낮은 보수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곤의 연봉은 약 10억 엔(약 100억원)으로 일본에서는 충분히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 포드와 독일 폭스바겐의 절반 수준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른 지금 40대 중반이던 곤은 60세가 됐다. 반면 GM의 메리 바라 CEO와 포드의 차기 CEO인 마크 필츠 모두 1961년생이다.

경영자로서 마지막 꽃을 피울 시기 50대에 접어든 르노닛산 간부들이 밖에서라도 자신의 역량을 시험할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록 곤 회장이 환갑이 됐지만 경영을 계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인사를 책임지는 경영자라면 부하 임원진의 동기 부여를 높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곤 회장의 카리스마 경영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곤과 마찬가지로 카리스마 경영자인 나가모리 시게노 부 설립자가 이끄는 일본전산은 최근 증권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나가모리 설립자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이 리스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신입통상지원부 MOTIE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 플러그를 뽑는 우리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생활 습관은 절전. 전자제품을 쓰고 난 후 쓰지 않는 플러그까지 꼭 뽑는 우리 엄마, 어때요? 칭찬 받을만 하죠?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

14:00 - 17:00

**칭찬릴레이 이벤트에 동참해 주세요!**

무더운 여름,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힘이 되는 칭찬 한마디를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 울여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칭찬릴레이를 시작합니다. [www.powersave.or.kr](http://www.powersave.or.kr)

**가정**

- 안보는 TV 끄기
- 청소기 사용 자제
- 에어컨 사용 자제

**사무실**

- 콜맵시 입기
-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 선풍기 사용하기

**상점**

- 문열고 냉방 자제
- 적정온도 냉방
- 전등 끄기

# 아이폰6+ vs 갤럭시4...이젠 대화면 시장서 붙는다

<5.5인치>

<5.7인치>

## 베일벗은 애플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는 노트 경험의 정수를 보여줄 것."(삼성전자 신종균 사장)

"아이폰6는 아이폰 역사상 가장 큰 진보를 이룬 제품."(애플 CEO 팀 쿡)

지난 2007년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휴대용 시장 판도를 뒤엎었던 애플이 삼성을 쫓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삼성이 닦아온 패블릿(스마트폰+태블릿)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아이폰 시리즈 최초로 4인치 마지노선을 넘어선 아이폰6(4.7인치), 아이폰6 플러스(5.5인치)를 출시했다.

◇패블릿 원조 갤럭시 노트4,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전반기 '평가승' =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 일팩 2014'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가 공개된 이후



애플CEO 팀쿡이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플린트센터에서 신형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 '한 손의 스마트폰' 잠스철학 버려

화면 커지고 얇아졌지만 혁신은 없어

기기 성능보다 부가서비스 강화

맥도날드 등 사용 '애플페이' 마련

해상도·카메라·배터리 등 갤럭시4가 우위

갤럭시노트4	아이폰6 플러스
5.7인치 쿼드HD 슈퍼아몰레드 (2560 x 1440)	5.5인치 레티나 HD (1920 x 1080)
153.5x78.6x8.5mm	158.1x77.8x7.1mm
178g	172g
2.7GHz 쿼드코어 또는 옥타코어	A8
안드로이드 4.4 킷캣	iOS8
후면 1600만·전면 370만 화소	후면 800만·전면 120만 화소
3220mAh	2915mAh
10월 중	9월 19일

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 애플의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가 베일을 벗었다. 스마트폰 업계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처음으로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맞붙은 것이다.

업계는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보다 갤럭시 노트4에 점수를 더 주고 있다. 애플이 대화면 스마트폰을 실현했다는 것은 신선하지만, 실제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가 탑재한 기능은 기존 패블릿 제품이 갖고 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한 손의 스마트폰'을 추구했던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버렸다는 혹평도 잇따랐다.

화면은 갤럭시 노트4(5.7인치)가 아이폰6(4.7인치)와 아이폰6 플러스(5.5인치)보다 더 넓게 제작됐다. 대화면 스마트폰을 처음 선보인 애플은 '한 손 조작 모드', '가로 모드' 등 기존에 갤럭시 시리즈가 탑재하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가져왔다. 해상도 측면에서도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는 갤럭시 노트4보다 뒤처졌다. 아이폰6(1334x750)·아이폰6 플러스(1920x1080)는 레티나 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반면 갤럭시 노트4(2560x1440)는 쿼드HD 슈퍼아몰레드를 채택해 더욱 더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 일반 사용자들이 중요시하는 카메라, 배터리 성능도 갤럭시 노트4가 우위를 보였다.

카메라 화소의 경우 갤럭시 노트4는 후면 1600만·370만 화소를 실현했으나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는 아이폰5c와 같은 후면 800만·전면 120만 화소를 구현했다. 갤럭시 노트4(3220mAh)의 배터리 성능은 일체형 배터리를 탑재한 아이폰6 1800mAh, 아이폰6 플러스 2915mAh를 압도했다.

◇갤럭시4 'S펜'·'기어VR' 등 범용성 확대 vs 아이폰6 '애플 페이' 탑재 = 갤럭시 노트4는 자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S펜의 기능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가상현실 헤드셋인 '기어 VR'과 연동할 수 있도록 제작해 범용성도 넓혔다. 갤럭시 노트4는 S펜으로 원하는 부분을 선택, 복사,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러 정보를 한 번에 메일이나 메시지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셀렉트' 기능도 처음으로 탑재했다. 또한 컴패니언 디바이스 기어 VR을 동시에 출시하면서 갤럭시 노트4의 사용 영역을 넓혔다.

반면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는 기기 성능보다 부가적인 서비스를 강화했다. 애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들과 손을 잡고 맥도날드, 나이키, 스타벅스 등 미국 내 22만개 이상 제휴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 페이'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애플, 패블릿 삼성 쫓았다"

### 주요 외신 반응

주요 외신은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등을 일제히 공개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ABC뉴스는 애플이 아이폰6플러스를 통해 패블릿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의 리더인 삼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워치와 관련해서는 349달러의 가격으로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라면 삼성의 갤럭시 기어S가 스마트폰 없이 자체 통화 기능을 갖춘 것과 비교된다고 ABC뉴스는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 라인업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화면을 키운 아이폰6플러스는 애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

는 드문 사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통해 패블릿 시장을 개척한 삼성의 전략을 애플이 추종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삼성이 그동안 특별한 경쟁자 없이 독주했던 패블릿 시장에 애플이 뛰어 들었다고 보도했다. WSJ는 애플이 애플워치를 공개한 것은 삼성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을 선점하는 했지만, 시장이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애플의 가세로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IT전문매체 ZD넷은 애플의 신제품 출시 이벤트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포함해 구글과 아마존닷컴을 패자로 꼽고, 아이폰6플러스 출시로 삼성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 삼성·LG·애플 스마트워치 비교

삼성전자 '기어S'	LG전자 'G워치R'	애플 '애플워치'
2인치 슈퍼 아몰레드 곡면 디스플레이(360 x 480)	1.3인치 원형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320 x 320)	레티나 디스플레이 사파이어 글라스
1.25mm·84g	0.6mm·63g	제로기준 38mm·42mm
1GHz 엑시노스·4GB 저장 메모리	1.2GHz 팔코스냅드래곤 400·4GB 저장 메모리	비공개
512MB	512MB	비공개
타이젠	안드로이드 웨어	iOS8
통신기능 탑재, S헬스, 메시지 및 전화 송수신	10여개 시계 스타일 내장, 하이킹 및 피트니스 기능	애플페이, 메시징 및 전화송수신, 심박수 측정
미정(30만원대 예상)	미정(30만원대 예상)	349달러(약 36만원)

## '손목위 전쟁' 조바심 드러낸 '애플워치'

기존 스마트워치 한계 답습 '실망감' 내년 초 정식 출시 불구 서둘러 공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애플의 첫 웨어러블 기기 '애플워치'는 기존의 스마트워치의 한계점을 그대로 답습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듯 혁신적인 스마트워치로 웨어러블 기기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 기대받은 9월(현지시간) 애플의 애플워치 공개와 동시에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플린트 센터에서 공개한 애플워치는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플래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사파이어 글라스 소재인 디스플레이는 압력을 감지하는 터치스크린이 적용됐다. 평범한 외관과 더불어 애플워치는 기존 스마트워치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기술을 담고, 스마트워치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온 킬러 앱을 갖는 데 실패했다.

차이점이라면 시계 측면에 정작된 디지털 용두(다이얼)를 꼽을 수 있다.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용두를 이용해 스크롤링과 화면 줌·아웃이 가능하다. 특히 애플워치는 세계 표준시 대비 오차범위 50ms 이내에서 시간을 유지하는 등 시계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시계 역할을 넘어 일상생활에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인 만큼 애플워치는 스마트워치로서의 효용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애플워치 공식 출시일이 내년 초로 정해진 가운데 애플이 서둘러 애플워치를 공개한 점도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애플의 조바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기어S'와 'G워치R'로 스마트워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애플워치를 선 공개해 시장의 주목을 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점유율 73.6%를 기록, 4분기 연속 세계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 SA는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가 올해 700만대에서 2017년에는 551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희 기자 gulty@

빛나는 남자는 그만의 에센스를 품고 있다

헤라 옴므 에센스 인스킨

CELL VITALIZING

ESSENCE IN SKIN

Concentrated MEN'S ACell™

FOR ALL SKIN TYPES

INTENSIVE SKIN BOO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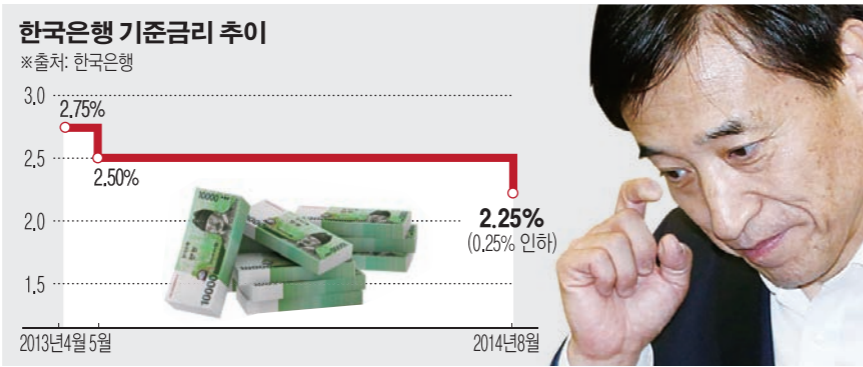
HERA HOMME

\* 유명배우정이나 이모러 커먼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 080-023-5454(수신료 포함) www.herahomme.co.kr

# 내일 금통위...이주열의 '추석숙제' 결과는

〈한국은행 총재〉

금투협 전문가가 96% “금리동결”  
지난달 인하 후 부양효과 미약  
8월 제조업지수 13개월새 최저  
올해 안 한차례 더 인하 가능성



오는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전달 연 2.25%로 인하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장기 물가 하락) 진입 논란이 제기되고 2분기 경제성장률까지 부진하게 나오자 이르면 11월 이후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위한 군불 때기에 또다시 나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급증해 선불리 금리인하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가 11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6.5%가 9월 기준금리가 동결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정부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켜보겠다”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

실제로 지난달 금통위 이후 국내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은이 금리 인하의 효과로 기대한 ‘심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로 한 달 새 2포인트 상승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

전인 4월의 108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제조업 체감경기는 세월호 사고 이후 6달 연속 악화됐다. 8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로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달에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한은이 지난 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은 0.5%로 7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또 7월 말 발표한 속보

치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8%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10월에는 한은의 수정경제전망,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종료 가능성 등 굵직한 일정이 예정돼 있어, 금통위가 용단을 내린다면 11월 이후에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최 부총리도 디스플레이 초기 진입 발연 등 한은 금리인하를 위한 발언의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에도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상황으로, 회복세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통화 정책이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금리 인하에 회의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가계 빚이 지난달 1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통위원들도 가계부채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 LTV·DTI 완화 한달 주택담보대출 3배 급증

8월에만 4조7000억 늘어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지난 한 달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져 향후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LTV와 DTI가 완화된 이후 31일까지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조5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조7000억원 중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액은 한 달간 4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비은행권의 월평균 대출 증가액(약 5000억원)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지난달 22일까지 3주간 비은행권의 대출은 1000억원이 증가했는데, 4주에 대출액이 6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LTV·DTI 완화 기준이 업권별로 차이가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상호금융·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안철우 기자 acw@

# 대학생 등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검토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임대료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입지 특성은 교통 여건, 주변 편의시설과 생활 여건 등을, 입주자 부담 능력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형편을 각각 의미한다. 이런 임대료 체계는 건설원가에 기반해 결정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료와 다르다.

국민임대는 주택 크기나 지역 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택지비와 건축비 등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가 임대료 책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행복주택은 건설원가도 일부 반영하되 입지 특성을 주로 반영해 임대료를 정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체계가 이 같이 변경되면 서울 도심부 등 수요가 많고 교통 여건도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아지게 된다.

구체적인 임대료 산출 방식은 내년 말께로 예정된 서울 내곡지구 내 행복주택(87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통 공공유지의 토지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로 하고, 한국철도공사 부지의 토지 사용료는 토지가액의 0.3~5%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유지는 1%, 철도공사 부지는 0.15~2.5%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가좌, 동익산역, 동래역, 광주역 등의 철도 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는 가구당 월 1만~5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sympark@



퓨처라이프 포럼서 만난 심상정의원·김무성 대표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제6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2020년까지 車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

온실가스 97g/km·연비 24.3km/ℓ 중 선택해 준수해야...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97g/km로 강화된다. 연비 기준 또한 24.3km/ℓ로 높아졌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현행(2012~2015년) 온실가스 기준 140g/km과 연비 기준 17km/ℓ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했을 때 유럽은 91g/km(2021년), 일본은 100g/km(2020년), 미국은 113g/km(2020년)이다.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내용**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140g/km에서 97g/km 강화
자동차 연비 기준
17km/ℓ에서 24.3km/ℓ로 상향
관리대상 차량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5톤 미만 화물차 포함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저탄소차협력제도도 연가하는 대신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 차종도 확대해 현행 관리 대상 차종인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의 기준은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강화된다.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고려해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진호 기자 h9913@

# 원·달러 환율 10원 가까이 급등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급등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3원 오른 1032.55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환율은 오전 9시 24분 8.55원 오른 1032.75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도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또 다음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 매입 종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이 이달 16~17일 열리는 FOMC회의에서 매파적인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도 달러 강세를 부채질했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한 발언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고조시키며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이 전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내린 것에 대해 “국제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EU나 미국의 금리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거기에 맞게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강달러 압력에 더해 정례 미 FOMC를 앞두고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만큼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나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돼 상승폭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날 원·달러 환율 예상범위는 1029~1038원이다.

이진영 기자 mint@

# 600㎡이상 창고 내부 마감재 ‘방화소재’ 의무화

내년 5월 건축법 개정·시행

내년 5월부터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대형 창고 내부 마감재로 난연재 등 방화에 적합한 소재를 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창고를 바닥 면적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서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대형 창고보다 중소형 창고에서 화재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해 중소형 창고에도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관 사이에 단열재를 넣은 샌드위치 패널 소재를 창고에 많이 쓰면서 창고가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로는 난연소재,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는 다만 창고의 벽·지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다.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벽·지붕에 쓰는 소재에

박성영 기자 sympark@

# 輿, 15일 단독 본회의 추진 어려울듯... 오늘 협상따라 일정 나와

여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됐던 양당 원내대표 간의 추석 연휴 회동이 무위로 끝난 상황에서 11일 회동의 재추진 여부에 따라 향후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민심이 민생법안 처리를 원하고 있다며 야

당에 15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통해 15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의 관심사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개 법안의 처리

다. 새누리당 김원숙 원내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안을 의장이 직접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면서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라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미 취임 초부터 ‘직권상정은 없다’고 밝힌 정의장이 야당의 반대 속에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여당이 본회의를 밀어붙일 경우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 남아 있는 일정이 모두 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

정의장은 10일 참모들과 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의정직권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 100억 투자 날린 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사 상대 손배소 패소

### 대법원 “재간접펀드 특수성 손실 책임 엄격히 묻기 어렵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교직원공제회는 결국 이 손실을 그대로 짊어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편지를 다시 편지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손실이 난 경우 자산운용사 책임을 엄격히 묻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07년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미국 호수아사 펀드에 돈을 재투자했고 호수아사는 이 펀드로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SMI현대는 독일에서 컨벤션센터 공사를 수주하고 시행사로 설립한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가 실패하고 자회사가 파산하

면서 결과적으로 공제회 손실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SMI현대 회장인 한국인 사업가 김만기(41)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알파에셋의 책임을 40%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제회가 알파에셋으로부터 SMI현대 상황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공제회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호수아사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알파에셋의 개입과 통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의무를 판단할 때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 건보공단 ‘담배소송’ 내일 첫 재판… 쟁점은

# 암 인과관계·담배사 불법성 입증 관건

### 건보공단 빅데이터 분석 활용

### “유해성 등 충분히 안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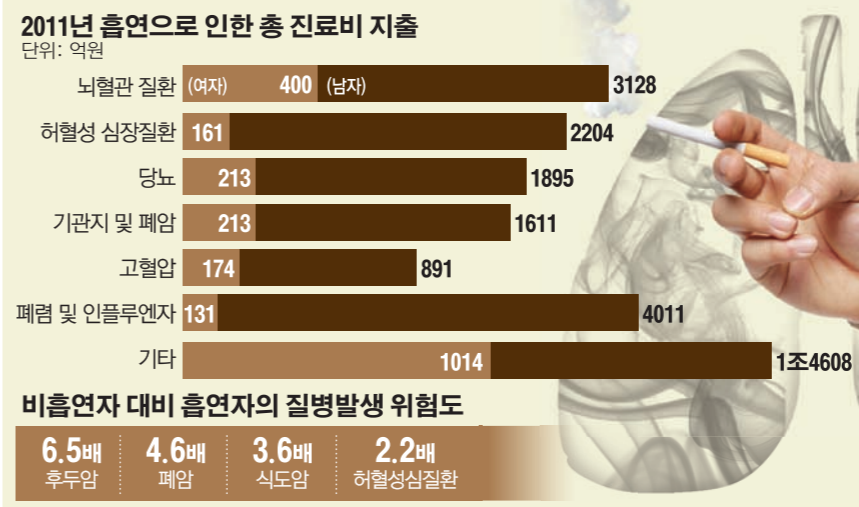
### 담배사 대형로펌 앞세워 변론

### “흡연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의 담배회사들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건보공단과 담배 제조사들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을 불러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담배가 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개인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승소한 전례가 없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객관성을 확보한 대규모의 내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그간 전직 담배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담배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표지상 결함’을 지적하고, 담배에 들어간 첨가물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수화물

등이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소송을 맡은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앞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담배회사들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과 진행되는 담배 소송인 만큼 대형 로펌을 앞세워 준비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연장을,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 데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이번에 제출된 담배회사들의 답변 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같다”면서 “그 이후 미국 상황이 변했는데도 과거 주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미 기자 boomi@

## 금품수수·채용비리... 나사 풀린 적십자사

### 류지영 의원 “공직기강 해이 심각”

적십자사 직원들이 뇌물을 받다 적발되거나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9일 적십자 감사실로부터 받은 비위사건 민원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과 관련한 금품·항응 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광주전남 혈액원에 채용된 한 신입간호사의 채용 대가로 회식비 등 금전을 상납할 것으로 강요했다는 제보가 의원실에 접수됐다. 의원실에서 진상 조사를 요청했으나, 적십자사 감사실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반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가 된 동 혈액원은 헌혈버스의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식으로 유류비를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 2명 정

직 3개월, 3명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 이 분인과 관련한 채용비리 사실을 폭로하면서 추가로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한 직원은 무면허로 버스를 운전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적십자사는 전국 지사를 상대로 전사적 점검을 이행한 결과 읍주운전으로 허가 취소된 직원 2명, 면허가 정지된 직원 3명이 그 사실을 숨긴 채 업무용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4명이 해임되고 한 명이 감봉 1개월로 징계 조치됐다.

류 의원은 “적십자사의 금품·항응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고 엄중한 잣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감사실이 안이한 태도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며 “한계에 다다른 기관의 자정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범위를 전국의 적십자 지사 및 혈액원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필호 기자 beettlebum@



### 적조 현장 찾은 이주영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경남 남해군 미조면 적조피해 어장의 방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사능 위험 ‘후쿠시마 사케’ 국내 유통

### 동일본 대지진 후 25톤 수입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1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5톤 수입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케가 계속 수입되는 이유에 대해 식약처는 출하제한 품목이 아니며 수입 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검사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 시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100%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강화하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한

### 한국고벨 과징금 7천만원

### 공정위, 불공정행위 제재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레인 제조업체 한국고벨의 부당한 하도급행위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한국고벨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9100만원

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국고벨은 지난 2011년 5월 수급사업자인 모스팩에 크레인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3500만원 줄였다. 자신들이 4개월 전 위탁한 3건의 하도급대금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 모스팩이 이득을 봤다는 게 이유였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감액(약

가 후려치기)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모스팩에 선급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2800만원), 수수료(2700만원),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16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B

## 비타민B의 효과! 활성과 함량의 차이를 따져보세요

### 활성형 비타민<sup>1)</sup>

활성형 베포타민은 일반 티아민에 비해 빠르게 흡수되고, 8배 이상의 생체이용률을 보이는 비타민입니다

1) The Real Vitamin & Mineral Book, 4th ed. penguin, 2007

### 고함량 비타민<sup>2)</sup>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최적 섭취량을 만족시키는 고단위 함량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권장섭취량의 약 2~100배 이상)

2) J Gerontol. 1991 Jan;46(1): M16-22

## 피로에는 임팩트 비타민

# 임팩타민

가까운 약국에 문의하세요

- ✓ 활성형 베포타민 함유로 생체이용률 8배 우수
- ✓ 비타민B 10종, 아연, 비타민C 함유
- ✓ 소형정제로 복용 편리

효능효과: 육체피로, 체력저하, 눈의 피로, 구내염,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생체이용률 8배 높였습니다!

비타민 B12 함량 비교 (1000mcg 기준)

비타민	일반 티아민	활성형 티아민	베포타민
비타민 B12	23.9	65.3	223

\*Nat. (Gibb A, et al. Int J Clin Pharmacol Ther. 1989 Apr;30(4):216-21)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상담실 080\_550\_8308~9 / www.impactamin.com ▶광고심의필 : 1266-2804

식사 후 바로 복용하세요 - 비타민 B군 함량이 높아 빈 속에 복용시 일시적으로 미식거림, 속쓰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DB생명 매각 또 불발... 장기화 전망

## 예비입찰 무산... 주요 LP와 펀드 만기 연장 논의 산업은행 "대우증권과 패키지 딜 원칙상 불가능"

KDB생명보험 매각이 또 다시 무산됐다. 매각가격과 인수 희망가격 차이가 커 인수 주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KDB생명 매각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지난 5일 예비입찰에 참여한 국내 소형 사모펀드(PF) 1곳을 적격인수후보(소트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국내 사모펀드 한 곳

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자금여력과 조달 측면에서 여의치 않자 매각주관사에서도 난색을 표명했고, 사모펀드 역시 인수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관이 허락하는 한 주요 LP들과 펀드만기 연장을 논의하고 이후 여건을 봐 가면서 매각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가장 큰 목적은 회사 제고를 높인 이후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재매각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DB생명의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인수 가격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컨서스자산운용과 함께 6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인수했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현재까지 KDB생명에 투입된 금액은 인수 대금 포함 총 8500억원이다. 산업은행이 경영권 프리미엄과 투자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최소 1조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진행된 1차 매각 당시 산업은행은 7000억원 가량의 매각가격을 희망했지만 DGB금융지주가 제시한 인수 가격과 차이가 커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KDB생명의 새 주인 찾기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역시 2차 매각이 불발 될 만큼, 내년 2월로

예정된 펀드 만기를 연장에 나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KDB생명을 금융회사와 함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KDB생명 패키지 딜 여부에 대해 산업은행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우리아비바생명과 우리자산운용이 다 같은 우리지주 계열사라 패키지딜이 가능했지만, KDB생명의 경우 컨서스운용과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가 인수됐기 때문에 대우증권과 패키지 딜이 원칙상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주요 펀드의 LP들과 펀드만기 연장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이재현 기자 kakim@

# 보험사, 채권시장 '큰손'

## 최근 5년 운용자산 비중 53% 순매수 지난해보다 2배 급증

보험사들이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장기물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보험사들이 채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총 36조313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조6403억원 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보험사들이 채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규모는 연가금·공제회의 9조1689억원 대비 약 4배 이상이다.

보험사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채권은 국공채이다. 보험사들은 국공채를 15조4910억원 순매수해 전체 순매수 금액 대비 45.9%를 차지했다.

또한 보험사들은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를 10조495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어 은행채(2조4708억원), 기타금융채(2조4287억원), 회사채(7995억원), 자산유동화증권(7876억원), 지방채(3485억원) 순이다.

보험사들의 최근 5년간 보험사의 평균 운용자산 증가율은 12%, 운용자산 내 채권 비중은 53% 수준이다. 때문에 채권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린다.

형태별	금액
국공채	15조4910억원
특수채	10조4959억원
통안증권	3조7608억원
기타금융채	2조4287억원
은행채	2조4708억원
회사채	7995억원
ABS	7876억원
지방채	3485억원
합계	36조31364억원

※ 2014년 1월부터 9월 4일까지 합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채권투자를 늘리고 있는 원인은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안정적인 장기 국공채 위주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또 올해 상반기 국공채 발행 물량이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보험을 판매한 돈으로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거둔 뒤 계약자 몫으로 보험료를 지급한다"며 "금리가 낮아도 안정적인 장기물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RB) 비율을 산정할 때 지급차액 채권평가손익을 그대로 포함하기로 한 것도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기자 nfs0118@

## 신한은행 하반기 360명 채용 장애인·경력단절여성 포함

신한은행이 하반기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총 360명을 신규 채용한다.

11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청년채용은 △일반직 200명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30명 △장애인·보훈 특별채용 30명 등 총 260명 규모다. 신한은행은 2011년부터 매년 고졸 공채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보훈 특별채용은 상·하반기 각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채용부터 자격증, 어학 등 스펙 기입을 없애고 신한은행의 핵심가치에 부합하고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보유한 성장형 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100명 채용한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중 시간선택제 220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2015년 중 채용 예정이었던 시간선택제 200명 가운데 100명을 올 하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진원 행장의 평소 경영철학이 이번 하반기 채용에도 반영된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향후에도 고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졸을 포함한 청년채용은 11일 시작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오는 12월 중 채용공고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imji@



## 외환은행 '최우수 외국환은행' 파이낸스아시아 7년 연속 선정

외환은행은 파이낸스아시아가 주최한 최우수 금융기관 시상식에서 '한국 내 최우수 외국환은행'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파이낸스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권위 있는 경제 전문지로서, 매년 아시아 주요국의 각 금융 분야별 최우수은행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은행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의 국내 외환 시장 점유율은 올해 9월 기준 46.8%다. 강윤철 외환은행 싱가포르지점장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외환은행

## "건보료·고용보험료 카드 납부하세요"

### 25일부터 1000만원 이하 가능 카드사 신규 고객 마케팅 강화

내년부터 기업의 국제 신용카드 납부 한도가 폐지되고 오는 25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국제 카드납부 한도(1000만원)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 법인들의 국제 카드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 부터 1000만원 이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개선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카드사 속성상 수수료 회원이 이탈해 신규 모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점유율 유지가 어렵다. 또 신용판매 취급고가 늘면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법인의 카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캐시백 및 포인트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세는 카드납부시 1%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포인트와 캐시백을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국제·지방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6-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현대카드는 각 법인 고객의 특성에 따라 회계, 차량, 출장 등에 도움을 주는 '현대카드 MY COMPANY'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확보에 나선다. 롯데카드 등 타 카드사들도 무이자 할부 이벤트나 청구 할인 혜택 제공을 적극 검토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세나 보험료를 카드로 내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ellee@

## 새마을금고, 현대증권 인수전 불참

### 강성 노조 부담... TFF 해산

그동안 현대증권의 잠재 인수 후보로 거론돼 온 새마을금고가 현대증권 인수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11일 투자은행(IB)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현대증권 인수전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최근 내부적으로 현대증권 인수 계획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경영전략, 자금운용, 법률, 리스크관리 등 새마을금고 4개 핵심 부서 팀원으로 구성된 M&A전략 태스크포스(TFF)를 가동하고 시너지를 낼 만한 증권, 운용사 등 금융기업 매물 찾기에 고심해 왔다.

새마을금고 고위 관계자는 "신종백 회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40조원이 이르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대안으로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기업 M&A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라며 "현대증권 인수

전에 재무적투자자(FI)로 투자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한 게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비전과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렸고 다른 증권사 매물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6월 말 구상한 현대증권 인수 검토 M&A 전략 TFF도 현재 해산된 상태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가 현대증권 인수를 접은 이유는 강성 노조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현재 새마을금고 역시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며 독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계 최강성으로 알려진 현대증권 노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증권사 인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고위 관계자는 "당사와 시너지가 맞는 적당한 증권사 매물이 출현한다면 언제든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 명사초청 특별강좌 서비스 제3편 ]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百年之大計 더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사초청 세무·회계·경영 실무강좌 무료 공개!

ERP, 그룹웨어 등 경영정보화 솔루션을 보급하여 우리나라 기업정보화를 선도해온 더존이 세무, 회계 및 경영관리 분야의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무이론지식을 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신 IT기반으로 실무강좌를 제작하여 무료로 공개합니다. 더존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명사초청 세무·회계·경영 실무강좌 무료 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법인세 실무, 부가가치세 실무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회계실무"와 "4대보험실무"를 더존 홈페이지에서 조건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실무**  
(8시간 14차시)

4대 보험의 업무처리와 신고실무 전반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실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내용을 업무 단계별 사례 위주로 쉽고 상세하게 풀이한 강좌

[ 강사 ]  
대한민국 최초의 세무사 겸 공인노무사!  
**신현범** 세무사

**기초 회계 실무**  
(20시간 38차시)

회계와 부가의 개념부터 재무제표와 회계장부 작성, 분석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을 핵심 이론과 함께 실무 사례도 곁들여 초급자도 정갈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 강사 ]  
기업회계의 세무 실무 분야 명강사!  
**김검순**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핵심강좌 : 5시간 19차시)  
(종합강좌 : 16시간 49차시)

2014년 개정 세법부터 부가세 기초 이론과 실무 핵심 그리고, 담당자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신고/납부에 관한 핵심 체크포인트로 심도 있게 구성

[ 강사 ]  
부가세 분야 최고 명성의 스타 강사!  
**한장석** 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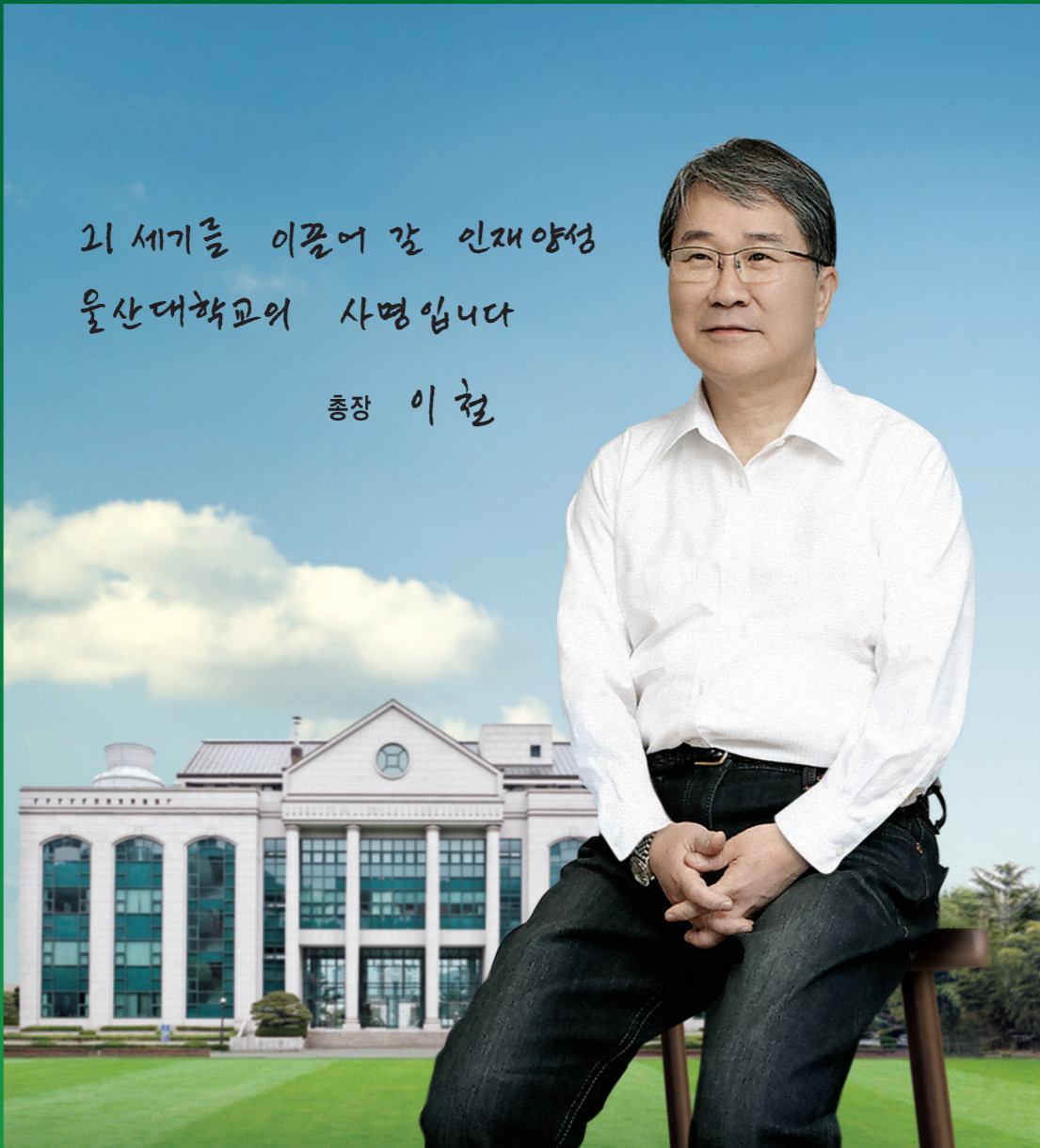
**법인세 신고 실무**  
(11시간 34차시)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상의 유의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요령 등 신고 실무로 알차게 구성했으며 실무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을 사례와 함께 요약

[ 강사 ]  
당대 최고 명성의 법인세 실무 전문가!  
**배택현** 세무사

※ PC뿐만 아니라 태블릿/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각 강좌는 주제별로 동영상 파일이 세분화 되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재는 PDF파일로 무료 제공하므로 프린트해서 볼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공합니다.

www.duzon.co.kr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  
 울산대학교의 사명입니다  
 총장 이현



최고의 교수진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외과 교수 한덕홍



세계와 겨룰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과 3학년 김지혜



첨단 교육환경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건축학부 2학년 나지훈

# 희망이 되는 이름 - 울산대학교

- 미시간대학교 등 36개국 152개 기관과 해외현장학습·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 영국 대학평가기관(QS) 아시아대학 평가 국내 지방사립종합대학 1위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산업 선정(2012~2016)
- 본과 서울아산병원 수업 등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 ▪ 현대중공업그룹의 장학혜택·취업지원

## 2015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 ▶ 원서접수 (www.ulsan.ac.kr) : 2014. 9. 11(목) ~ 9. 18(목)
- ▶ 전형방법 : 학생부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 ▶ 입학관리팀 : 052-259-2058 ~ 9

# 추석 휴전 끝... 임단협 '장기전' 가나

### 현대차, 다음주 중 교섭 재개 통상임금 등 이견차 좁혔지만 일부 노조 반발에 난항 예고

### 르노삼성, 교섭 일정 논의 중 현대중공업은 '파업 먹구름'

여름휴가와 추석 전 타결이 불발된 자동차·중공업계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다시 진행된다.

11일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다음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오는 16일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생산 현장 근로자들은 추석연휴를 맞아 11일까지 일괄 휴무를 실시한다. 12일에도 상당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공장 가

자동차·중공업 노사 임단협 현황		※출처: 각 사 및 노조	
정점사명	현황	정점사명	현황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안 적용 시기	9월2일 임단협 실패	9월22일 이후 협상 재개 전망
르노삼성	임금인상률 및 인사정책 등	9월4일 두 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 총회서 부결	교섭 일정 논의중
현대중공업	임금인상률 등	9월3일 중연노동위원회 정의조정 신청	9월15일 정의조정 결과 발표

동은 다음주부터 정상화될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일 교섭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사측은 올해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신설해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 시점을 포함한 개선·시행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도 이같은 사측의 제안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시점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견차를 좁혔다. 그러나 이날 교섭장 밖에 몰려든 200여명의 현장조직 대의원들이 '통상임금 즉시 확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면서 교섭은 중단됐다.

윤갑환 현대차 사장은 "과거 교섭장 봉

쇄를 당했던 당사자들이 이제 교섭장을 막아서는 파행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올해 일부 노조원들이 명확한 명분 없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상적인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며 노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14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35차례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3일 중연노동위원회에 정의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15일 중노위의 정의조정 결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 회사 측과 35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인상을 비롯한 통상

임금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3만7000원 인상,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또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과 관련해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재협상을 통해 합의한 두 번째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지난 4일 진행된 노조 2차 총회에서 또다시 부결되면서 교섭을 언제 다시 벌일지 논의 중이다.

노조는 2차 부결의 여러 가지 원인 중 급속히 161명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그동안 회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르노삼성 노조 관계자는 "차주 일정은 총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조속히 임단협 일정이 결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사전개방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쇼핑물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 16일까지 프리오픈... 추석 연휴 1만여명 발길

## 제2롯데월드 '기대반 걱정반'

### 시민들에 안전점검 차원 개방 "아쿠아리움 등 준비 많이 해" "결만 보고 문제점 알 수 없어"

지난 6일부터 프리오픈(Pre-Open)에 들어간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명 이상의 시민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 임시개방의 흥행은 성공했지만, 평가는 엇갈려 실제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 롯데그룹에 따르면 개방 첫날인 6일 1만9900명, 7일 2200명, 9일 4300명, 10일 4100명이 방문해 총 방문 인원은 1만 2500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당일인 8일은 휴관했다.

이는 롯데 측 예상보다 배 이상 많은 인원이다. 롯데는 애초 매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오후 4시까지 총 7번 예약투어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예약 없이 현장에서 관람을 신청한 인원이 많아 30분마다 투어를 진행했다.

롯데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제2롯데월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개방 행사의 첫 프로그램은 제2롯데월드의 건설과정을 담은 홍보 동영상 시청이었다. 바람과 지진에도 끄떡없고 싱크홀 발생 가능성도 없다는 등의 주요 안전에 문

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었다. 시민들은 동영상 관람 후 롯데 임직원 30여 명과 함께 예비엔딩, 쇼핑물동, 엔터테인먼트 등 저층부 3개동을 정해진 동선을 따라 관람했다. 안내코스를 모두 둘러보는 데는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연휴 기간 관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시민은 "쇼핑물과 아쿠아리움 등이 생각보다 많이 준비된 것 같다"며 빠른 개장을 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결만 둘러봐서 안전이나 교통대책을 제대로 알 수 있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사전개방행사를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일 임시 사용 승인 최종결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관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어는 전문가와 언론인, 시민들 모두 따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롯데월드 임시개방의 최종 승인을 시민과 전문가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사전 임시개방이 개장으로 이어질지는 프리오픈 일정이 모두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열흘 간의 프리오픈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큰 힘을 기울이겠다"며 개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선애 기자 isa@

### "판례-행정해석 불일치 통상임금 논란 키웠다"

### 환경연 보고서 지적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노사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노동 이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및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여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 뿐만 아니라 판례 상호간에도 판단 기준에 차이가 나타난다.

실제로 정부는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보고 있지만 판례는 '지급의무'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해석한 판례가 확인됐다.

성과급의 경우, 행정해석은 미리 정해진 기준여부 임금성을 판단하지만 판례는 '개인 실적에 따라 달라질 경우 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미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금으로 본다'는 판결이 각각 있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해석이 가능해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같은 복리후생비라도 판례에서는 '자가 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정년연장으로 야기된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간의 소모적 대립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급품의 임금성 판단 문제를 간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선우 환경연 연구원은 "행정해석과 지침이 우리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법적, 입법적 해결은 사후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하급심 판례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쟁점을 지침을 미리 반영하고 판례와 어긋나는 행정해석과 지침이 있다면 신속히 변경해 법적행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 기아차 'SUV 명가' 부활 시동

### '스포티지R' 판매량 24% 증가

### '올 뉴 쏘렌토' 1만대 예약 돌풍

### SUV 성장률, 현대차의 두 배

기아자동차가 올해 국내에서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성장률이 현대자동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의 올해 국내 SUV 판매량이 현대차를 넘어설 것이라 관측도 나오고 있다.

11일 현대기아차가 따르면 기아차는 올해 1-8월 8만6132대의 SUV를 국내에서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061대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9만3555대의 SUV를 국내에서 팔아 지난해 동기 대비 2.6% 성장하는데 그쳤다.

기아차 SUV 성장의 중심에는 스포티지R가 있다. 스포티지R는 올해 1-8월 3만3478대가 국내에 팔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6% 늘었다.



반면, 같은 차급인 현대차의 투싼ix는 올해 2만9329대가 판매돼 스포티지R의 판매량을 밑돌고 있다.

기아차의 올해 SUV 판매량이 현대차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28일 올 뉴 쏘렌토를 출시했다. 올 뉴 쏘렌토는 5년 4개월 만에 선보인 3세대 모델로 지금까지 1만대 가량의 누적 예약을 기록하고 있다.

기아차는 올 뉴 쏘렌토의 월 5000대 이상 판매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올해 국내 SUV 전체 판매량은 15만 여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수

치는 지난해 12만5680대보다 2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SUV 부문에서 꺾조를 보이는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는 SUV 부문에서 신차 가품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의 올해 SUV 판매량은 지난해 수준(13만4534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아차는 1993년 스포티지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국내 SUV 시장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현대차가 기아차를 1998년 인수한 뒤 2000년 신타페를 출시하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삼성 '지펠 푸드쇼케이스' 누적판매 15만대 돌파

삼성 '지펠 푸드쇼케이스'가 지난해 초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약 15만대 이상의 누적판매를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한 개의 냉장실을 인케이스와 쇼케이스 두 개의 냉장실로 구분한 신개념 냉장고 지펠 푸드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삼성 지펠 푸드쇼케이스는 올해 말까지 지난해 판매 수치 대비 5배 이상 성장한 약 28만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천재광 삼성전자

### 백화점 "고맙다 추석"

### 선물세트 매출 10% 이상 늘어

올해 추석 대목에 백화점들이 활짝 웃었다. 주요 백화점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

11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추석보다 15.6% 늘었다. 2011년 설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상품군별로는 굴비가 50.8%, 즉석식품·생필품이 19.8% 늘면서 매출 신장세를 이끌었다. 우길조 롯데백화점 식품부장은 "일부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급감했던 수산물 소비가 회복된 것이 선물세트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해보다 13.7% 늘었다. 생선 42.9%, 건강식

품 17.7%, 채소 15.7% 등 신장폭이 컸다. 특히 굴비·갈치는 기업 단체구매가 작년보다 50.0% 늘었고 100만원 이상 한정판 굴비 세트 판매 역시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선물세트 매출이 10.4% 늘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수산물과 축산 제품이 각각 31.1%, 11.7% 늘었다.

반면 대형마트 선물세트 매출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트 선물세트 매출은 작년보다 4.3% 늘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선물세트 매출 신장률도 각각 2.6%, 3.2%에 머물렀다.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중산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주요 백화점들은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사은품 증정행사', 현대백화점 '개점 사은 대축제', 신세계백화점 '상품증정행사' 등 포스트 추석 프로모션을 이어가 소비심리 회복 불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다람 기자 zing@

## "회장님 위에 고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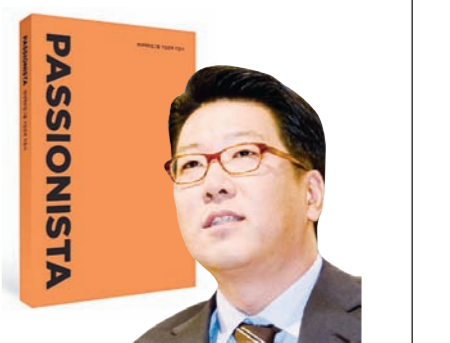
### 현대백화점, 업계 첫 '기업문화 지침서' 펴내

현대백화점그룹이 업계 처음으로 기업문화 지침서(사진 왼쪽)를 펴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구체화해 임직원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기업문화 지침서 '패셔니스타(Passionista)'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패셔니스타는 현대백화점그룹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열정(Passion)을 바탕으로 목표를 이뤄가는 사람을 뜻한다. 약 200쪽 분량으로 만들어진 '패셔니스타'는 '열정', '자율창의', '지속성장', '업무혁신', '고객지향', '상생추구' 등 현대백화점그룹의 핵심가치 6개를 25개 주제로 나눠 행동지침 75개로 세분화했다.

임직원 행동지침은 '회의실에서 침묵은 직무태만이다', '회장님 위에 계산 고객님', '매출 목표보다 고객 이익이 우선이다' 같은 주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제시했다.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기업문화 지침서는 정치선 회장이 직접 제안해 만들어졌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업문화 지침서는 임직원에게 변화하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해야



### 정치선 회장 직접 제안해 제작

### 서문서 "조직문화 바뀌야" 역설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정치선 회장 지침에 따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선 회장은 패셔니스타 서문을 통해 "변화무쌍한 환경에 따라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부 구성원들이 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면서 "이런 역량을 이끌어내는 동인이 바로 좋은 조직문화이며, 결국 조직문화 개선은 우리 그룹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람 기자 zing@

# 막내린 IFA... 세계의 시선 사로잡은 '스마트홈'·'커브드 TV'



## 스마트홈

삼성·LG전자, 기능·서비스 대상 늘려  
밀레·지멘스 등 보수적 가전업체도 가세

## 커브드 TV

한국·일본·유럽 약진... 중국 추격 거세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4'에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오른쪽)와 LG전자 부스 모습.



사전제공 삼성전자·LG전자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4'가 10일(현지시간) 폐막했다. 글로벌 전자업체 약 1500개가 모인 이번 행사의 관련 포인트는 스마트홈, 커브드 TV였다.

먼저 스마트홈 분야는 밀레, 지멘스 등 유럽의 보수적인 가전업체를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뛰어든다. 전시 기간 동안 '핫'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IFA를 준비하며 스마트홈에 심혈을 기울였다. 삼성전자는 '미래의 집을 현실로'라는 주제를 내걸며 △상황인식 기능 △음성 인식 기기 제어 △에너지 모니터링 △안전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LG전자는 '홈넷' 서비스를 세력기, 냉장고, 광과오븐, 에어컨 등 기존 스마트 생활가전

중심에서 로봇청소기, 스마트 조명, 무선 멀티룸 오디오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홈넷은 '라인', '카카오'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명령어로 기능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LG전자는 '올씬 얼라이언스'의 '올조인'과 연동해 LG 스마트 가전의 작동 상태를 LG 웹OS 스마트+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LG전자가 속해 있는 올씬 얼라이언스(AllSeen Alliance)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나소닉, 사프, 소니 등 70여개 기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스마트홈 플랫폼 협업 환경을 구축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밀레, 보쉬, 지멘스), 일

본(파나소닉), 중국(하이얼, 하이센스) 등 해외 유수 기업들도 스마트홈에 뛰어 들었다.

특히 독일의 보쉬와 지멘스는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을 이미 구축해 놓는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보쉬와 지멘스는 스마트홈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합작사 'BSH(보쉬-지멘스)'를 설립했다. 오는 12월에 식기세척기와 오븐에 적용할 수 있는 홈 커넥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iOS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출시하고 안드로이드 전용은 내년 봄에 선보일 계획이다. 파나소닉은 주방과 거실에서 숨어있는 공간을 활용한 구조 효율성을 실현한 스마트홈 환경을 실현했다.

반면 중국업체 하이얼과 하이센스는 스마트홈 구현에 있어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모두 전시장에 스마트홈 코너를 별도로 만들었지만 셋톱박스나 비슷한 모형의 송수신기를 통해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기술에 머물렀다.

TV 분야는 커브드가 대세를 이뤘다. 커브드 TV에서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그룬디그, 소니, 필립스, 창홍, 도시바 등 유럽, 일본, 중국 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IFA에서 105.78-65.55형 커브드 UHD TV부터 커브드 풀HD-LED TV까지 대폭 확대한 제품군을 소개했다. 리모컨을 사용해 TV 디스플레이

이를 굽혔다 펼 수 있는 105인치 벤더블 TV도 선보여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LG전자 역시 77인치 가변형 울트라 OLED TV를 포함해 105.98-84.79-65.60-55.49인치 등 UHD TV를 내놓았다.

중국업체의 추격은 거세다. 창홍은 커브드 55-65-79인치 4K OLED TV를 비롯해, 105인치 파노라마 커브드 5K UHD TV를 선보였다. 특히 중국업체 TCL은 110인치 커브드 UHD TV와 퀴텀닷 UHD TV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 필립스는 커브드 TV를 시연품으로 내놓았으며, 독일 가전업체 그룬디그도 55인치 커브드 OLED TV를 선보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제품 아닌 문화를 팝니다” 멀리 보는 생활가전 중기

충성도 높여 꾸준한 수요창출 노력  
휴롬, 채소·과일 섭취 중요성 알리  
코웨이, 어린이 '물섬표 프로젝트'

국내 생활가전 중소·중견기업들이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관련 문화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단기적인 제품 판매보다 문화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기 위해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웨이 제조기업 휴롬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 박람회 IFA 2014에 참가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휴롬은 이번 박람회에서 단순한 제품 전시에서 벗어나 '당신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채소, 과일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7번째 참가하는 휴롬은 부스 전면을 채소, 과일로 디자인하고, 바닥은 잔디밭으로 표현,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형상화했다. 단순히 제품 소개에 그치는 과거 박람회와는 다른 행보다. 휴롬 김남영 상품기획팀장은 이와 관련해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구현하고자 하는 휴롬의 기업 철학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렌틸 중견기업 코웨이도 최근 올바른 물섬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유아의 물 마시기 습관 형성을 위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물섬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는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물섬표 프로젝트'의 후속이다. 총 500여곳 어린이 교육기관에 코웨이가 제작한 '물섬표 캐릭터', '물섬표송' 등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 영상을 무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생활가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움직임은 선도업체들이 꾸준히 소비자 수요를 창출시키기 위한 마케팅 수단인 일환이다. 이미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인만큼, 단순한 제품 마케팅에서 벗어나 관련 문화를 이끌고 있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생활가전업계 관계자는 “캠페인 등으로 관련 제품과 연관된 문화를 형성하다보면, 해당 기업이 그 제품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주입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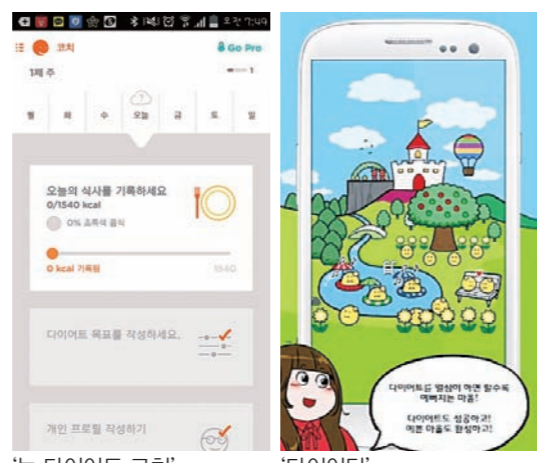
## 이 앱 다운받으면 명절 뱃살도 '다운'

'뉘 다이어트 코치' 매일 먹을 양 알려줘  
'다이어터' 일러스트로 살빼는 법 소개

추석 연휴동안 기름진 고칼로리 명절 음식에 술잔까지 기울이다보면 체중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명절 이후 불어난 살을 날려보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다이어트 앱을 활용하는 모바일족이 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어트 관련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관련 앱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뉘 다이어트 코치'는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의 칼로리와 체중을 기록할 수 있는 앱이다. 다양한 음식의 칼로리 데이터를 갖고 있어 추석 중 먹은 음식에 대한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다. 목표 체중을 설정해 놓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를 계산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고,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건강·운동 분야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뉘 다이어트 코치'

'다이어터'

7월 카카오에 인수된 울트라랩스의 '다이어터'는 같은 이름의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한 앱이다. 풍성한 몸매의 소유자인 주인공 '신수지'의 다이어트 도전기를 다른 내용으로 아가자기한 일러스트를 통해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준다. 앱에서는 식사일기, 잉여열량 등을 체크해 줘 다이어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성준 기자 tlatio@

동서식품  
www.dongsoh.co.kr

# 세상에서 가장 쿨한카페 KANU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공원은 카페다

KANU x 소리바다  
유해염의 일러스트로 여름커피를 즐겨보세요

Maxim  
KANU

# LG유플러스 7년 恨 풀었다

### '아이폰6' 판매 확정... 이동시장 구도 변화 예상

LG유플러스가 아이폰6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10년간 고착화된 '5:3:2' 시장 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은 지난 9일(현지 시간) 아이폰 6와 아이폰6플러스를 출시할 전 세계 이동통신사 200여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명단에는 LG유플러스를 포함한 SK텔레콤, KT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포함됐다.

LG유플러스의 아이폰 도입은 아이폰 출시 7년만에 처음이다. 아이폰의 국내 도입 시점으로 보면 5년만이다. 국내에 가장 먼저 아이폰을 선보인 곳은 KT(2009년 11월)다. 이어 SK텔레콤이 2011년 3월 아이폰 판매경쟁에 가세했다. LG유플러스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아이폰을 출시하지 못한채 아이폰 마니아들을 떠나 보내야 했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숙원사업이었던 아이폰을 출시함에 따라 시장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0%에 못미치지만 가입자들의 충성도가 높고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적극적"이라며 "LG유플러스의 아이폰 출시로 인해 시장 점유율의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LG유플러스측도 아이폰 출시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구조가 10년 이상 고착화하면서 이동통신의 불균형이 더욱 강화됐다"면서 "시장 구도가 변해야 공정한 경쟁으로 현실적인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도 앞서 "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이폰 도입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기술상의 이유로 아이폰을 판매하지 못했다. LG유플러스는 3세대(G)망을 쓰지 않고, 4G 롱텀에볼루션(LTE) 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3G망을 기반으로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아이폰을 공급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LTE망 기반의 음성통화 서비스 'VoLTE'를 지원해 LG유플러스도 아이폰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선 이동통신사 모두 아이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 네이버 '품질' 다음 '신규서비스'... 포털 검색대전

### 네이버, 사용자 패턴 분석 검색 프로젝트 '타우린' 적용 성과 다음, 실시간 음악정보 '방금그곡'·즉답 검색 '바로이거' 내놔

국내 포털 1, 2위인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 경쟁이 치열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이 검색 품질 개선으로 검색 서비스 지배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환경을 개편하고, 다음은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양사 모두 검색 시스템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네이버는 우선 사용자 검색 의도에 맞춘 문서 수집으로 웹 검색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사용자 패턴 분석으로 사용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바로 보여주는 웹 검색 프로젝트 '타우린'을 적용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용자가 웹 문서 영역에서 상위 20개 사이트로 이동하는 비율이 44%였지만, 개편 후에는 16%로 줄었다. 사용자 입맛에 맞는 검색 결과 노출로 더욱 다양한 사이트로 이동했다는 뜻이다. 웹 문서 영역에서 100회 이상 클릭된 사이트 수도 30% 증가했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전반적인 검색 품질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안에 모바일 검색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측은 "기존의 서비스 묶음 단위로 나열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키워드와 연관된 정보를 보여주는 대화형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검색 시장 2위를 지켜오다 구글 모바일에 점유율을 내줬던 다음도 검색 환경 개편에 힘을 쏟고 있다. 다음카카오 출범을 앞두고 네이버와 맞서려면 검색 분야 경쟁력을 가져야하기에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졌다.

다음은 실시간 방송 음악 정보와 다시듣기 서비스인 '방금그곡'과 검색 이용자들이 입력한 질의에 대해 방대한 문서를 자동 분석해 답을 제시하는 즉답 검색 '바로이거' 등 신규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이미지 검색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는 등 검색 서비스 영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수험생을 위한 대학 검색과, '간지 달력 검색', '화장품 성분 검색' 등 실생활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더하는 서비스를 추가

가해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들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검색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다음의 계획이다.

다음은 또 모바일에서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검색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역별 가독성도 높였다. 반응형 검색 결과의 적용으로 모바일 기기의 가로·세로 모드에 따라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다. 결과 영역의 크기에 맞춰 제목이나 본문, 출처 등의 문서 요약 정보 분량이 바뀐다. 여백은 줄이고 화면의 크기를 최대한 활용해 검색 결과 탐색에 유용하다는 평이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검색 품질 향상은 사업자 경쟁력과 직결될 뿐 아니라 콘텐츠 창작에도 도움이 된다"며 "품질 경쟁은 양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로 1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한 영업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 "중국인에만 영업"... 알리페이, 국내 진출 확대

### 금융위 "발행업자 등록 필요 없어"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인 알리페이(Alipay)가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방식으로 국내 진출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알리페이가 국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알리페이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으며 알리페이도 국내에서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태현 기자 hojjak@

금융위는 알리페이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제출하면 국내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알렸다.

알리페이는 국내 가맹점이 은행에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 등과도 제휴하는 한편, 국내 가맹점을 더욱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 SKT 오늘부터 7일간 영업정지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에 이어 11일부터 7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이 기간동안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현재 서비스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 불법 보조금을 뿌려 시장을 교란시킨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석 전후로 일주일간의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9월11-17일 영업이 금지된다. 이 기간동안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 업무는 가능하다.

SK텔레콤 측은 이 기간동안 특별한 전략을 강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 서비스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회

사 관계자는 "이미 통신시장이 쿨다운돼 있으며 실제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동향이 없었다"며 "게다가 클러스트와 착한기부 프로그램 등 기기변경을 위한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전략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타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차 영업정지와 달리 스핀오프 영업정지 기간 스기기변경 가능 등의 이유로 시장이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병원도 '스마트'하게 ICT도입 점차 늘어

병원들이 시스템 전반에 정보통신(ICT)을 도입하며 스마트 병원을 구축, 치료와 구조 등 병원활동 전반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주요 병원들의 스마트 병원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ICT 도입의 선두주자는 분당서울대병원이다. 이 병원은 2003년 개원 당시부터 '디지털 병원' 설립을 선언했다. 특히 전자 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의료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역사적

분당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구축 보라매병원, 엠으로 진료일정 확인

인 혁신을 일궈냈다. 이후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시스템까지 가동하며 한층 진화한 시스템을 갖췄다. 또 의료정보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고, EMR시스템에 통합커뮤니케이션(UC)기능도 결합해 스마트 의료 환경을 완성했다.

보라매병원 역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이어 첨단외래안내시스템, 이른바 '병원 내비게이션'을 구축했다. 환자가 '베스트가이드'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병원 곳곳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진료와 검사 일정을 볼 수 있다. 박성재 기자 psi@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제품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구 대체

**인증**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 국내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다음달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공사 선정 14년만에 사업 본격화  
조합원별 지분·분담금 등 확정 방침  
내년 3월 착공 4-5월 일반분양 가능



서울시 송파구 소재 가락시영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국내 최대 재건축 규모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다음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2000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들어간 지 14년 만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다음달 중순께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열고 재건축 설계와 조합원 추가 분담금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90년대 중반 재건축추진 위원회를 설립하고 2000년 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조합원 수만 총 6600명으로 단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는 최대 단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단지였다. 그러나 재건축조합과 반대파의 극심한 갈등 속에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4월에는 대법원이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최대 위기에 봉착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윤모씨 등 주민 3명이 지난 7월 사업시행 승인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자진 취하하면서 지루하게 이어지던 법정 다툼도 대부분 일단락됐다.

조합과 시공사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조합원

별 지분 비율과 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단계로 사실상 철거-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다.

조합과 시공사는 내달 관리처분계획 총회와 인가 신청을 위해 조만간 일반분양가를 확정할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의 수입원인 일반분양가가 확정돼야 조합원들이 납부할 추가 부담금도 결정된다.

다만 조합 측은 추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3.3㎡당 2600만원에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 측은 인근 아파트 시세와 분양성을 고려해 3.3㎡당 2400만원선이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공사와 조합은 다음달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거쳐 송파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면 내달 3월 착공에 들어가 4-5월께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6600가구의 가락시영아파트는 재건축 후 951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한다. 일반분양분은 조합원분과 임대주택(1332가구)을 제외한 1600가구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박태진 기자 tjippo@

# 현대건설·현대ENG 합병설 솔솔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 실탄 만들기 관측  
계열사 재편 경영효율성 제고...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가 관건  
현대ENG, 중간배당·힐스테이트 브랜드 사용 등 분위기 조성

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 역시 계열사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경영효율성 제고와 함께 후계 구도를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건설 계열사 합병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업계의 관심이 높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성그룹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을 발표했다. 관련업계에서는 경영효율성을 위해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과의 합병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업계 마형인 현대건설과 올 봄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으로 크게 덩치를 키운 현대엔지니어링이 어떤 식으로든 합병을 진행할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 계열사 합병을 통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 만들기를 위해서라도 회사 가치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 부회장의 지분까지 극대화를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하고 추가로 현대건설과 합병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제기된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형태로 엮여 있다. 나머지 계열사들은 현대모비스가 대주주다.

정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지분(16.8%)을 매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5조~7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의선 부회장이 가진 주요 계열사 지분은 현대글로비스 31.88%와 현대엔지니어링 25.06%,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지분 11.72%를 보유하고 있다. 3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만약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가치가 상장, 현대건설과의 합병으로 크게 높아지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 직후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규모 중간 배당으로 이런 '살'을 더욱 부추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모두 주당 500원만 현금배당했고 지난해에는 아

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당 1만1000원이나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정의선 부회장과 현대글로비스에 '큰돈'이 들어갈게 됐다.

내부에서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쓰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심증이 더욱 굳어지는 분위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 후 내부적으로 재무 일정이나 내부 전산망 등 통합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아파트 브랜드 역시 통합한다고 하는데 내부직원들은 시기의 문제일 뿐 합병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합병 뒤 주가는 상대적으로 정해지는데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규모 차이가 커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고 시너지가 작다"면서 "특히 현대건설은 합병설이 나올 때마다 주가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대건설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의 합병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전혀 거론된 바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합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삼성중공업의 합병설로 우리까지 거론되는 거 같다"고 선을 그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삼성물산, 7조6천억 호주 민자사업 수주 '무산'

신설 도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탈락

삼성물산이 한국 기업 최초로 수주를 추진하던 호주 민관협력방식(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민자사업 진출이 무산됐다.

11일 멜버른 기관위원회에 따르면 이스트 웨스트 링크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스트웨스트커넥트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너링크그룹은 삼성물산이 스페인 신트라와 영국 연금인 유베리알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앞서 이스트웨스트커넥트와 모멘텀인프라스트럭처가 이너링크와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며 3파전으로 시작했지만 모멘텀인프라스트럭처는 최종 후보 명단에 서 제외된 바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발주한 이 사업은 이스트링크웨이와 시티링크를 연결하는 신설 도로를 건설

하는 공사로 사업비만 80억 호주달러(7조64547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물산이 국내 기업 최초로 호주 PPP의 민자사업에 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실제로 증권사들도 이례적으로 수주 전에 리포트를 발행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만약 삼성물산이 이번 사업까지 수주했을 경우 5조 5000억원 규모의 호주 로이힐 사업에 이어 대규모 사업 수주로 호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았다. 이 경우 국내 시공순위 역시 1위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이에 삼성물산 관계자는 "수주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초 이스트웨스트커넥트의 경우 호주의 대표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로 생각했는데 발주처도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수도권 주요 분양물량 단위 : ㎡

위치	사업명	총기수	전용면적	분양시기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4구역	꿈의숲 롯데캐슬	615	59~104	9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마곡 아이파크	468	23~36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꽃마을5구역	116	59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차	1612	59~164	9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민락2지구 금강펜테리움	716	60~84	10월
경기 동탄신도시A19	금강펜테리움3차	252	84~114	11월
위례신도시A2-3	위례자이	517	101~134	9월

# 8월 수도권 청약률 올들어 최고... "더 세진다"

평균 16대 1...내곡2단지 55대 1로 최고  
미아4구역 등 알짜물량 분양대기 주목

지방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집값 바닥권과 함께 7-24 부동산 대책 이후 증폭된 기대감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뤄 왔던 실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청약은 받은 서초 내곡지구27단지(공공분양)는 1순위에 각각 55.30대 1, 43.27대 1로 순위 내 마감했다. 이는 올들어 수도권 분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앞서 분양했던 위례호반베르디움은 5.24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8월까지 월별 수도권 평균 청약경쟁률(1-3순위)을 조사한 결과 비수기인 8월이 평균 16.63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0.89대 1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월별로는 △1월 0.76대 1 △2월 7.29대 1 △3월 1.99대 1 △4월 1.58대 1 △5월 1.34대 1 △6월 1.55대 1 △7월 5.27대 1 등으로 조사됐다.

9월 추석 이후에는 9-1부동산 추가 대책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에서 미아4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택지지구·신도시 등 알짜 물량들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평균 청약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PATIO 9**  
Banquet & Convention  
파티오나인

공연 · 연주회 · 전시 · 런칭쇼 · 세미나 · 웨딩

총면적 12,000 제곱미터의 파티오나인은 50석부터 1,0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미나에서 패션쇼, 박람회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Performance  
Concert  
Exhibition  
Launch show  
Convention  
Seminar and  
Wedding

연주회 및 공연    두타 패션쇼    삼성전자 신제품 전시    불가리 향수 런칭쇼    세미나 및 포럼

국내 최상급의 복합문화공간 "파티오나인"

예약 : T. 02-517-7080~1, 02-517-7070 / www.patio9.com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24 파티오나인

# 美 긴축 우려에... 日 '웃고' 신흥국 '울고'

###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 각국 통화 일제히 급락

### 日 수출기업은 엔저 호재 터키·남아공·헝가리 등 차익실현 '엑소더스' 위기



일본 엔화와 신흥국 통화들이 미국 연방 준비제도(연준, Fed)의 긴축 우려에 최근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 경제회복이 가속화하면서 연준이 내년엔 시장 예상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엔저에 일본은 수출기업 가격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터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은 지난해 5월 연준 양적완화 축소 불만에 야기했던 자금유출 악몽이 재현될까 떨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장중 106.90엔으로 지난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달러-엔 환율은 사흘 연속 6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달러-엔 환율이 조만간 110엔 선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해 장중 2.2133리라로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리라화 가치는 최근 수일간 4% 가까이 하락했다고 WSJ는 전했다.

남아공 랜드화 가치는 이번 주에 약 3% 떨어졌다. 달러화 대비 랜드화 가치는 이날 장중 11.0166랜드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준의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엔저와 신흥국 통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인 영향이다. 연준은 10월 3차 양적완화를 종료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내년 상반기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헝가리 포린트화도 타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연준 긴축 우려가 겹치면서 포린트화는 최근 유로화에 대해 2012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니얼 우드 피셔프랜시스트리스앤드와츠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외환시장의 요동은 신흥국자산의 높은 금리에 만족했던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 번 리스크를 상기시키고 있다"며 "우리도 최근 매도세에 발맞춰 리라화와 랜드화에 대해 차익실현 매물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의 루이 코스타 신흥시장 애널리스트는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토르 스자보 애버딘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 긴축에 자금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취약 5개국(남아공·터키·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 개념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며 "이들 나라는 최근 거시경제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취약 5개국은 지난해 연준 테이퍼링(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 불만에 급격한 자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흔들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때릴땐 언제고...리커창 외국기업 달래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반독점 당국의 단속 강화에 뿔난 외국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리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중국 텐진에서 개막한 '하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외국 투자에 좀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혁신을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세계 정·재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어떤 타입의 기업이라도 중국은 평등하게 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외국 투자를 환영할 것이며 개방 문호는 더 넓어질 것"

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수입을 장려하고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도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에는 최근 중국의 반독점 조사로 어려운 처지에 켈컴 임원도 참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리 총리는 지난 9일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현재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는 기업 중 외국계 비율은 10%밖에 안 된다"며 "우리는 외국 자본과 기업들이 안정적이며 개선되고 표준화된 환경에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나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의 전략 파트너인 켈컴에 대해 현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라이선스 사업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켈컴의 폴 제이콥스 회장은 이날 "당국의 조사에도 우리는 여전히 중국시장에서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정부가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면서 외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하계 다보스포럼 연설 "개혁개방 가속화 약속"



리커창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중국 텐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텐진·신화통신

## 영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 팽팽 주민투표 촉각

영국 정부와 기업, 금융계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스코틀랜드는 오는 18일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여론조사기관인 서베이선이 이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스코틀랜드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이 53%로, 찬성 47%를 앞섰다. 이에 지난주 다른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조사에서 독립 찬성 의견이 51%로 처음으로 반대파를 앞서면서 촉박했던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가라앉았다.

최근 달러화에 대해 10개월래 최저치로 추락했던 영국 파운드화도 이날 모처럼 반등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독립 찬성과 반대 여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다.

영국 정·재계는 독립이 가시화되자 전방위적인 압력을 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스코틀랜드 애든버러를 방문해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며 "현 보수당이 아무리 밀더라도 영국을 지키기 위해 독립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등 영국 주요 정당 대표들도 스코틀랜드로 날아가 독립 반대 설득에 나섰다.

로이드뱅크그룹은 만일 주민투표에서 찬성파가 이기면 본사를 애든버러에서 런던으로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말 달리자" 유목민 올림픽

10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풀폰아타에서 열린 '2014 카자흐스탄 세계 유목민 올림픽'에 참가한 한 선수가 은몸이 불길에 휩싸인 채 게임에 임하고 있다. 이번 유목민 올림픽은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주최로 세계 최초 개최됐으며 각국 유목민의 민속 스포츠 경기가 오는 14일까지 펼쳐진다. 풀폰아타/EPA연합뉴스

## 스타벅스 "직원 문신노출 허용"

청원신청 2만건 돌파...자아표현 자유 인정키로

그간 직원들의 문신을 노출하는 것을 금지했던 스타벅스가 해당 정책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적 전문성과 함께 직원들의 자아표현에 대한 자유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회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직장에

있었다. 3주 전 해당 문제에 대한 청원 신청자가 2만1000명을 돌파하면서 회사 측이 온라인에 이런 답변을 한 것이다.

현재 스타벅스는 바리스타 직에 있는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에게 근무 중 손님들에게 문신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문신이 있는 직원이라면 계절과 상관없이 긴소매와 긴 바지 등으로 문신을 가린 채 일을 해야 한다.

청원에 나선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문신은 단순한 자신 표현의 일부이며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MS, 콘솔 자존심 회복 나서나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인수 추진

### X박스·플스서 판매 2위 모장AB 가치 20억 달러 창업자 페르손 지분 71% 성사뻔 15억달러 '돈방석'



글로벌 IT 공룡 마이크로소프트(MS)가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로 유명한 스웨덴 게임 제작업체 모장AB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5세의 청년 인디게임 개발자 마르쿠스 페르손이 단숨에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S가 마인크래프트 라이선스를 보유한 모장 AB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5세의 청년 인디게임 개발자 마르쿠스 페르손이 단숨에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S가 마인크래프트 라이선스를 보유한 모장 AB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35세의 청년 인디게임 개발자 마르쿠스 페르손이 단숨에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마르쿠스 페르손이 지난 2012년 3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브라티시카카테미 비디오게임어워즈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가운데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 사업부에 대한 거액의 투자가 기대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페르손은 평소 자신의 SNS를 통해 MS에 적대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밝힌 터라 MS의 인수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파격적인 행보라고 WSJ는 전했다. 페르손은 그간 외부 '돈손'의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이 때문에 인디 게임 개발 업계에서는 선구자로 통했다.

마인크래프트의 한 게이머는 "많은 사람이 마인크래프트와 모장을 인기 게임의 선구자로 평가했다"면서 "그들에게 대기업이 독립 게임개발업체를 인수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거북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MS가 이번 인수를 통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진 비디오 콘솔시장에서 X박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존심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MS는 지난해 출시 이후 4월 기준으로 X박스를 500만대 판매했다. 같은 기간 경쟁모델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4'는 700만대가 팔렸다.

MS와 모장 측은 모두 이번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글로벌 리포트

### 라디오세크, 파산우려 주식 휴지

미국 전자제품유통업체 라디오세크의 주가가 파산 우려 속에 폭락했다. 마이클 패처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라디오세크의 목표주가를 기존 1달러에서 0달러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패처는 "라디오세크가 턴아라운드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채권단의 구조조정 압력 역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B2라일리 역시 라디오세크의 목표주가를 0달러로 책정한 바 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조사기관 팩트셋을 통해 제시한 라디오세크의 평균 목표주가는 1.13달러이다.

뉴욕증시에서 이날 라디오세크 주가는 장중 한때 12%까지 폭락했다가 후반 들이 하락이 줄어들어 전일 대비 1% 하락한 93센트로 마감했다.

### 게이츠, 에볼라 퇴치 5억달러 기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설립자이자 활발하게 자선활동을 펼치는 빌 게이츠가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5억달러를 기부했다.

빌게이츠앤드멜린다재단은 10일(현지시간) 에볼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응급대응 지원을 위해 5000만 달러(약 51억2000만원)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전액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정부에 지원돼 관련 약품과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재단은 성명에서 "에볼라를 퇴치할 수 있도록 진단방법과 치료제, 백신 등을 개발하는 노력이 더욱 힘차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부 규모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에볼라 퇴치를 위해 사용한 재원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또 게이츠재단은 5000만 달러 이외 이전에 1000만 달러를 기부한 적도 있다. 아울러 재단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도 2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게이츠재단은 아프리카 주민을 위한 말라리아와 에이즈 등 각종 전염병 퇴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 중,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 발표

중국인 사회문제에 떠오른 스모그 현상을 해결하고자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국가가 대기오염 관측·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지방정부가 필요하면 기업의 조업과 관내 차량 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게 한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신경보가 보도했다.

전날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스모그 현상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여러 상(省)급 지방정부가 포함되는 '대기오염관리 중점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중점구역 안의 성급 지방정부들은 관내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 목표를 설정,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하도록 했다.

성급 지방정부는 또 스모그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제때에 조기경보를 발령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들이 필요하면 오염물질 배출기업의 조업 중단 및 제한, 차량 운행 제한, 폭죽놀이 금지, 유치원·학교의 실외체육수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더욱 강화했다.

# “메뚜기 식품으로 세계 구호시장 진출”

### ‘SOL’ 사업자등록 마친 대학생 창업자 김재학씨 2년여 노력 끝에 시제품... 시설 등 사업 구체화 “단백질 함량 닭·소 3배... 미래식량으로 가치 커”

한 대학생이 메뚜기로 세계 구호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북대학교 고고문 화인류학과에 재학 중인 김재학(27)씨다. 대학생 창업가인 그는 “메뚜기 식품으로 세계 최고의 구호식품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메뚜기를 가공해 만든 식품으로 세계 구호식품 시장 진출을 꿈꾸고 있다. 2년여의 노력 끝에 최근에는 ‘SOL(Save one's lif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시제품도 만들어냈다.

또 후원자들을 찾아 사육시설 부지와 생산시설, 사육기술 전수 등을 구체화하

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엔 미래식량보고서에 따르면 메뚜기의 단백질 함량은 100g을 기준으로 보면 닭이나 소보다 3배가량 많고, 같은 양의 사료를 썼을 때 생산되는 양도 다른 가축보다 9배 정도 많다”며 “사육 과정 자체도 친환경적이어서 미래 식량으로서 가치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2011년 ‘공존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서 2015년까지 1100억원을 투자해 시장규모를 3000억 원까지 키울 예정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 전망도 밝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메뚜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김재학씨. 연합뉴스

는 대학시절 봉사동아리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재해 현장에서 들었던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이다.

그는 “구호식품 시장은 ‘구호’라는 가치 아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돈’보다는 ‘가치’가 우선인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메뚜기 사육부터 가공, 제품생산까지 총괄적인 생산라인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창업교육, 곤충산업교육, 후원자 모집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시제품인 ‘메뚜기 쿠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과기능사 자격증 공부도 병행해 필기시험 통과 후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금은 비록 메뚜기를 직접 사육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육 기술을 전수받으면 생산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며 “생산단가를 낮추고 나면 메뚜기 쿠키 외에도 전부식량, 단백질 보충제 등 제품 영역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ipippo@

## 역시 ‘김기덕’

### ‘일대일’ 베니스 데이즈 작품상 3년 연속 베니스 영화제 초청



지난 6일 막을 내린 제11회 ‘베니스 데이즈’ 개막작으로 선정됐던 영화 ‘일대일’이 유럽비평가협회가 선정한 작품상을 수상했다고 해외배급사 화인코이전했다. ‘베니스 데이즈’ 영화제 측이 선정한 대상은 로랑 캉테 감독의 ‘이타카’의 귀환(Return To Ithaca)이 수상했다.

‘베니스 데이즈’는 베니스국제영화제 기간 중 이탈리아 영화감독협회와 제작가협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영화제로 칸 국제영화제의 감독주간에 해당된다. ‘베니스 데이즈’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일대일’은 전세계 관객들 앞에서 첫 선을 보여 큰 호평을 받았다.

김기덕 감독은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괴애’ (2012),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뫼비우스’(2013)에 이어 ‘일대일’(2014)로 3년 연속 베니스를 방문한 진기록을 연출하며 ‘베니스 데이즈’ 작

품상 수상의 영예까지 거머쥐었다. 김기덕 감독은 “‘일대일’은 권력의 부정 부패와 싸우는 서민들의 이야기이다. 민주주의의 죽음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사건과 이를 파헤치다 결국 외롭게 죽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아픔을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영화 ‘일대일’은 진실을 밝히려는 가난한 서민들이 부정부패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비겁하게 살아가며, 정의를 위해 싸우던 주인공의 외로운 최후를 그린다. ‘일대일’은 비극적인 주인공의 죽음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묻는다.

최두선 기자 sun@

## 서진원 신한은행장 인천AG 성화 봉송



서진원(사진) 신한은행장이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다. 서 행장은 오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구간에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됐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후원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은행장이 성화 봉송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 행장이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게 된 것은 신한은행과 인천과의 인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최고등급 후원사인 ‘프레스티지 파트너’로 활동한다.

신한은행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개최식 입장권을 2억원 어치를 구매하고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개막식 입장권 구매를 포함해 지원금 3억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인천 아시안경기대회에 130여명의 선수를 파견하는 미얀마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스포츠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여자프로농구팀이 지난 3월 연고지를 경기도 안산에서 인천으로 옮기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자농구단은 2014-2015년 시즌부터 인천도원시립체육관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immj@

## 반차운동가 본회퍼 전기 국내 완역본 첫 출간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 나치운동가인 디트리히 본회퍼(1906-1945)의 전기가 국내에서 처음 완역됐다. 이 책은 본회퍼 개인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그를 중심으로 한 시대를 재구성했다. 현대사와 교회 투쟁사, 저항 운동사, 에큐메니칼(교회외치운동) 운동 초기의 모습이 녹아 있다.

본회퍼 전기 중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이 책은 그의 제자이자 친구인 에버하르트 베트게가 집필했으며 초판은 1967년 발간됐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요약본만 나왔을 뿐 완역본은 없었다.

저자 베트게는 “본회퍼는 교회와 서양 그리스도교와 신학이 쇠락의 길을 걷던 시기이자 조국 독일이 몰락해 가던 시기를 산 인물이었다”며 “그는 당대를 넘어 미래의 모델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것을 확고히 하는 일에 가까이 목숨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강명관 기자 kwam@

## K리그 관전한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

# “아시안컵 성공 위해 선수 발굴 집중할 것”



슈틸리케 감독이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수원과 울산의 K리그 경기를 관전했다. 뉴시스

울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이 한국 축구에 어떤 약을 처방할까. 한국 축구대표팀의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슈틸리케 감독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슈틸리케 감독은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경기 고강도훈련장에서 열린 우루과이 대표팀(FIFA 랭킹 6위)과의 친선경기(10일 10월 14일)를 관전하며 한국 축구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 울산 경기를 관전한 슈틸리케 감독은 “경기장과 잔디가 좋고, 분위기가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슈틸리케 감독의 공식 일정은 내달 1일부터다. 그러나 시작부터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10월 예정된 두 차례 평가전(10월 10일·14일)을 거쳐야 하고, 11월에는 요르단(11월 14일·암만), 이란(11월 18일·테헤란)과 원정 평가전을 차례 예정다. 특히 내년 1월 4일부터 26일까지(한국 시간) 호주에서 열리는 2015 AFC 아시안

컵은 슈틸리케 감독의 첫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최근 독일 TV 스포트1과의 인터뷰에서 “나의 첫 임무는 예정

된 평가전을 치르며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좋은 선수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몇 달 동안 한국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춘 선수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이 입국 후 지난 3일 동안 한국 축구에서 받은 인상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다. 손흥민(22·레버쿠젠), 기성용(25·스완지시티) 등 젊은 선수들을 통해 한국 축구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축구팬들의 열성적인 응원도 단결심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대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아직 한국 선수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코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스타일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날엔 짧은 패스로 경기를 이끄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날엔 공중 볼이 중요할 수도 있다.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 ‘사장님 나빠요’ 실제 모델 민수씨, 한국 귀화 꿈 좌절

### 귀화 불허처분 취소소송 패소 “땀땀한 아빠 되기 위해 항소”



“제 가계가 하루아침에 철거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어 저항한 게 귀화 불허로까지 이어질 줄 몰랐어요.”

지난 3월 ‘똥쟁이 미안장’을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38·한국명 민수·사진)씨. 그는 ‘사장님 나빠요’란 유행어를 만든 개그프로그래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박범신씨의 소설 ‘나마스테’의 주인공으로도 유명세를 탔다.

1997년 한국에 입국한 민수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 2006

년 12월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 이후 민수씨는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2008년부터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네 팔·티베트 음식점도 운영했다. 세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지난해 법무부에 간이귀화 신청을 냈음에도 올해 3월 법무부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적법의 귀화요건 가운데 하나인 ‘똥쟁이’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2011년 병동 재개발사업 당시 본인도 운영하고 있던 티베트 전문음식점의 일방적 철거에 항의하다 공무원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민수씨는 “2011년 기소된 혐의 중 철거 용역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며 “아이들이 나중에 아빠 이름을 한글로 쓸 때 불련명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귀화를 생각했다”며 “항소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법을 어기지 않고 땀땀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 인사

◆교육부 ▽전보 △지방교육자치과장 김민철 △지방교육재정과장 김병규 △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장 정영준 △서울과학기술대 사무국장 조봉래 △사립대학제도과장 이상연 △전북대학교정책과장 황성환 △이러닝과장 정윤경 △홍보기획팀장 박준성 △융합교육팀장 함석동 △장관실 최홍윤 △대학지원실 최성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보형 △서울교육대학교 총무과장 김우경 △한국체육대학교 송선진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임용빈 △기획조정실 이지선 △

기획조정실 마소정 △기획조정실 김영권 △감사관실 이석현 △운영지원과 전범선 △운영지원과 민미홍 △교육정책실 오신종 △교육정책실 김진형 △교육정책실 이지은 △대학지원실 김태홍 △대학지원실 노윤환 △대학지원실 고영훈 △지방교육지원과 장석환 △교육정책실 조명연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경제예산심의관 조규홍 △행정예산심의관 안도걸 △대의경제협력관 진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준동 △산업정책실장 박정원 △에너지지원실장 정양호 △실장급 승

진 △산업기반실장 황규연

◆미래창조과학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태희 △운영지원과장 이창희 △연구개발특구과장 이석태 △원자력진흥정책과장 신재식 △창조융합기획과장 구학재 △창조경제기획과장 권현준 △정책총괄과장 최성호 △정보기획과장 박우규

◆산림청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영철 △산사태방지구장 조화택 △산림복지사업단 기획과장 이용권

◆아주경제 △총합편집부장(부국장) 이철호

## ‘노인과 바다’ 마을 찾은 헤밍웨이 손자들

### 해역 답사 후 심해어종 연구



쿠바를 사랑했던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년)의 손자 2명이 요트를 타고 할아버지가 작가 활동에 몰두했던 쿠바의 어촌마을을 찾았다.

헤밍웨이의 손자 존(54)과 패트릭(48)은 지난 7일(현지시간) 쿠바의 수도 아바나 동쪽에 있는 어촌 마을 코히마르에 도착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코히마르는 헤밍웨이가 195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된 곳이다.

존과 패트릭은 아바나 서부의 어니스트 헤밍웨이 국제요트클럽에서 4대의 요트로 동료와 함께 출발해 헤밍웨이가 심해 낚시를 즐겼던 바다를 거쳐 코히마르에 도착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헤밍웨이는 20여년간 아바나 외곽에서 지냈으며 코히마르에서도 집을 빌려 ‘노인과 바다’를 포함해 몇몇 작품을 집필했다.

존은 “코히마르 마을 분들을 만나서 반

갑다”면서 “이는 개인적인 일이나 역사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존과 패트릭은 코히마르에서 닷새 동안 머물며 헤밍웨이가 배를 타고 낚시했던 해역을 답사하고 심해 어종을 탐사할 계획이다. 이들이 얻은 자료는 일대 바다에서 남획으로 고갈되다시피한 심해 어종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 박 대통령 새 주치의에 서울대 서창석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 주치의로 서울대의대 산부인과 서창석(63·사진)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 교수는 경기도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부인과 중앙북강경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차관급 상당의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의 휴가와 해외순방, 지방방문 등 모든 일정

에 동행한다. 한편 박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았던 연세대의대 산부인과 이병식 교수는 연세대의대 학장에 선임되면서 이달 초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 부음

▲서태정(SK증권 WM사업부부장)·태리(자영업)·연이(주부)씨 모친상 =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일 오전 10시, 010-5390-5616

▲박상춘(금융감독원 금융경영분석실장)씨 모친상 = 10일 오전 0시, 순천향대학교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9시, 02-797-4444

▲박우성(경남 고성경찰서)·호성(신한은행)·종길(서울지방교용노동청)씨 부친상, 김기호(개인사업)·윤익현(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동부지사)씨 장인상 = 9일 오전 4시, 진주 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65-745-8000

▲이기홍(프로농구 전 나산 플라망스 사장)·전 나산그룹 홍보이사·전 경향신문 기자)씨 별세, 이승용(소니 코리아)·태령(신일여중 교사)·은령(광일중 교사)씨 부친상 = 10일 오후 6시 42분, 서울 서대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2일 오전 11시, 02-2002-8477

▲박근득(전 한일합성 부사장)씨 별세, 해현(조선일보 문화부 문학전문기자)·철

현(사업)·정현(MBC C&I 제작영상팀 부장)·옥진(주부)씨 부친상, 박승환(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 차장)씨 장인상 = 10일 오전 6시 50분, 여의도 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2-3779-1963

▲김원용(전북일보 문화부장)씨 장인상 = 10일 오후, 전북 정읍 호남장례식장 2층, 발인 12일 오전 9시 30분, 010-6606-0500

▲김수봉(미디어오늘 부사장)씨 부친상 = 10일 오후, 충주시 안립동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2일 오전, 043-871-0790, 0444

▲이상근(대한유소년야구연맹 회장)·경희(공무원)씨 부친상, 정연식(쌍용양회 수석연구원)씨 장인상 = 10일 오전, 강원 효장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9시, 033-261-4441

▲하은(전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장)·하성철(전 SC제일은행 연희동지점장)·하승철(한국생산신분부인증원 본부장)씨 모친상, 조병기(교용노동부 감사관)씨 장모상 = 9일 오전 2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 발인 12일 오전 7시, 02-2227-7563

장세영의 서울 숨은그림 찾기 용산구 보석길

장진우식당·레코드리슈...개성 넘치는 가게들

"이제 명동은 싫지 않나? 흥대도 그렇고 가로수길도 그렇고 대형 매장만 잔뜩 있고 사람도 너무 많고 복잡해." 지난 6일 용산구 화나무길(보석길) 초입에 들어서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연신 거리를 담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식 도로명용 화나무길, 그러나 보석길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거리에 대한 딱 맞는 느낌이다. 사실 경리단길이 뜬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경리단길에 개성 있는 맛집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며 이태원 뒷골목이 가지도 있던 울드하고 후미진 이미지가 확 바뀌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태원은 좀 무서웠다. 아마 짝퉁을 팔려는 빠개 아저씨들의 호객행위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국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리단길에 들어선 짧고 신선한 맛집들은 그러한 이미지를 한방에 날려버렸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상점 거리로 탈바꿈시켰다. 주말이면 찾아드는 많은 사람들로 경리단길은 변화를 거듭했다. 이색적인 상점은 점점 골목으로 뻗어나가 새로운 거리를 만들었다. 그 거리가 지금 소개할 보석길이다. 그리고 이 길은 장진우 거리라고도 불린다.

보석길은 '장진우 식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포토그래퍼로 활동하다 이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태원 보석길 거리.

곳에 원데이 레스토랑을 낸 뒤 변칙적인 아이디어와 사람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한두 곳씩 늘어난 가게가 지금은 매장이 무려 7곳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 주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이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카페나 술집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나 권리금 장사에 맞서고 있다는 젊은 사장들의 패기는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긍정적이다. 이 보석길엔 장진우의 가게 말고도 주민 각자의 취향으로 무장한 상점이 많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제대로 된 프랑스식 디저트 예클레어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 '에클레어 바이 하루'와 머리를 자르면서 맥주도 마실 수 있는 일인 미용실 '드림큰 샵'도 있다. 또한 음악 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LP가게 '레코드리슈'는 1970-80년대 팝 앨범들이 많은데, 소위 민트록(삼태 좋은)의 LP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커피와 맥주도 함께 팔고 있는데 연남동의 커피 로스팅 가게에서 직접 공수해 온다는 원두로 내린 드립커피가 웬만한 커피전문점보다 맛이 뛰어났다. '배려대안'에서는 직접 만든 향초와 디퓨저의 향이 상쾌했다. 이 외에도 보석길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하다.

보석길은 한 친구의 반칙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길이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만으로 성공을 만들었다고 보긴 힘들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를 실행하는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보석길에서 아이디어와 젊은 실행력이 어떻게 불경기를 극복하는지 눈으로, 귀로, 입으로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다.

사진제공 phototink@

\*이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그녀가 죽었다.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가수의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권리세가 7월 세상과 이별을 고했다. 3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수많은 사람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채 그녀는 하늘나라로 향했다. 재일동포 권리세는 2011년 귀여운 외모와 미소로 오디션 프로그램 MBC '위대한 탄생'에서 시청자의 눈길을 끈 뒤 지난해 9월 걸그룹 레디스 코드의 멤버로 연예계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1년 동안의 가수 생활을 마감하고 대중의 곁을 떠났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직도 권리세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2013년 9월 데뷔 직전 인터뷰를 위해 신문사를 찾은 그녀의 생가발달하고 희망과 기대에 부푼 모습이 말이다. 그녀의 예기치 못한 죽음을 접하면서 '위대한 탄생' 출연 당시 멘토 이은미가 권리세를 신발하며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노력밖에 없다. 그동안 (권리세가) 눈물겹게 노력해 준 것들이 충분히 보인 것 같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가슴 아프다. 하지만 권리세, 젊은 삶이었지만 자신이 품었던 꿈을 향해 도전과 최선을 다했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다.

권리세의 죽음이 생각하게 하는 것들

23세 권리세의 죽음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꿈 죽는다는 생각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 자부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의 두려움은 '죽음' 앞에선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시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 생각의 결과물에 불과한 도그마에 빠지지 마세요. 타인의 견해가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암 투병 생활을 하며 지난 2005년 6월 스탠퍼드대학교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다.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라고 단언한 잡스는 죽음은 삶을 대신해 변화를 만든다며 남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삶을 디자인하며 살라고 역설했다.

"당신이 무언가를 열심히 원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 앞에 장벽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원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47세의 나이로 제2차 암으로 죽기 직전까지 대학 강의에 열정을 불사라 지구촌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했던 '마지막 강의'의 랜디 포시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는 죽음을 앞두고 역경과 어려움의 진정한 의미와 삶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절실한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 짧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고 살아있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당부였다.

"무뎀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찬란한 성공 속에서 불꽃을 한껏 태우는 삶이 더 나쁘리라는 확신이 있다."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남겨지기를 수십 번,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주눅이 들었다. 그래서 어쩌면 남겨지기 전에 이미 남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음을 다해 다시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왔기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난 확신한다... 살아 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작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 벅차다.' 어려서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진 데다 유방암, 척추암 등 세 번의 암 투병을 하면서도 치열한 삶을 살다 지난 2009년 57세 나이로 열정을 쏟았던 강단을 떠나 하늘로 향할 서강대 정영희 교수가 에세이집 '내 생애 단 한번과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을 마감할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사는 자세의 단초를 제공했다.

영정 속 한복 차림의 권리세가 환하게 웃고 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한 권리세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녀가 지상에서 못다한 가수의 꿈을 하늘 무대에서 원 없이 펼쳐길 바란다.

knbae@

온라인 외출을 위한 에어백 78%, 사고 때 미작동 "아주 그냥 에어백이네"

○...에어백은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된 에어백 가운데 78%가 사고 발생 때 전혀 터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이러서 고민하다 외제차로 바꿨다. 적어도 에어백 안 터진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수출용 차는 가가막막하게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내수는 왜 이렇게? 제발 차별하지 말고 잘 만들어줘!", "안 터지는 에어백 뭐러라 옵션으로 넣나요? 사고 나면 안 터지는 에어백, 무거운 차지하는 쓰레기네", "사고 날 때 에어백이 터지는 정확한 충돌 각도로 박아야지. 조금만 빗나가면 에어백 안 터지니까", "기억 차원에서는 수백억원을 들여 에어컨 수만 개 리콜하는 것보다 몇 명 죽고 고작 몇 억원 주고 끝나는 게 이득이죠", "사고 나도 터지지 않을 거면 도대체 왜 만든 거지?", "내 차에 누르면 에어백 터지는 버튼 만들어 주라 사고 날 때 직접 누르려", "작동 안 하면 돈 돌려주고 다치면 배상이라도 해야지. 안 터지면 그만인가?" 등 지적이 많

았다.

○...제2롯데월드 과연 안전할까? 프리오픈한 제2롯데월드를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이 각각각색이다. 네티즌들은 "제2롯데월드, 무너지기 전에 빨리 다녀오자. 몇 달은 안전하겠지", "많은 사람이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인 고층부와 임시개장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저층부는 별개의 건물이다.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도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임시사용 허가 요청은 롯데의 돈벌이에 급급한 처사다", "교통문제, 건물 안전문제, 사고 대비 사전준비를 수차례 실시해 본 이후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해야지. 부분 임시승인 검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불안해서 어디 잠실 가겠어?", "제2롯데월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거 보기 좋은데, 싱크홀도 삼성물산 탓이라고 발표 났잖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형근 인터넷기자 xl2xsado@

오늘의 **배국남** www.baekn.com

드라마 '내 생애 봄날' 주연 맡은 최수영



배국남닷컴은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반경을 넓힌 최수영을 4월 만났다. 최수영은 MBC 수목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 후속으로 10월 첫 방송된 '내 생애 봄날'에서 장미 이식을 통해 새 심장을 얻은 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의 남편이 만나 특별한 사랑을 하는 여주인공 이봄이 역을 맡았다. 지상파 드라마에서 첫 주연을 맡은 최수영은 "첫 지상파 주연이다 보니 많이 떨린다.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고 입을 뗐다. 그는 "감수성 선배님이 첫 만남 당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의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연기했다. 현장에서 배우는 느낌으로 하니 마음도 편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드라마 주연을 제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해 "인식상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라면서 "드라마에 잘 녹아들어 연기하는 모습으로 증명해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좋게 생각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tVN 드라마 시리노 연예조작단에서 배우 이종혁과 호흡을 맞췄던 최수영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배우 김우성과 연연을 연기한다. 최수영은 "젊은 미혼의 남자배우와 연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연료 있고 경험 많은 선배님과 연기하다 보니 장점이 많다. 조연도 많이 해주셔서 배울 게 많고, 이를 개인적으로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수영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배우 정경호가 이번 작품에 앞서 많은 힘을 줬다는 최수영은 "작품을 하게 되자, 함께 좋아하고 기뻐해 줬다"며 "함께하는 배우분들이 워낙 뛰어난 분들이라 편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노력했다"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홍빛별 기자 byul0104@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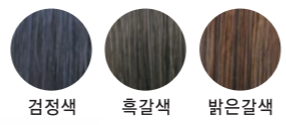
- 1 정부 당백값 인상 오늘 발표, 출연자 반감 커
- 2 아이폰6 애플워치... "블랙버스터급 혁신 없다"
- 3 임영록 회장 "중징계 상향 납득할 수 없다"
- 4 이승엽, 최고령 30홈런 기록 경신
- 5 LTV·DTI 완화 한달, 주택담보대출 3배로 증가

필코 (주)필코인터네셔널 동부회계 생산물 책임배상보험 1억원 가입

부작용 없는 염색의 혁명!

옷, 알려지, 피부트러블, 두피염증, 모발손상, 눈따가움 등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염색부작용 없는, 리시리 트리트먼트-



리시리 2+1 무료체험 기회! 리시리 트리트먼트 (10gX2개) 리시리 샴푸 (10gX1개) \*배송료 2,500원은 고객 부담.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염색 부작용 때문에 염색을 못하시는 분.
  - ✔ 염색 시 눈 따갑고 두통이 심하신 분.
  - ✔ 모발과 두피 손상이 심하신 분.
  - ✔ 피부알러지가 있으신 분.
  - ✔ 염색 후 두드러진 머릿결을 원하시는 분.

흰머리 커버용 리시리 트리트먼트

옷 알려지, 모발손상 걱정없이 흰머리를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

부분 새치커버용 리시리 감추미

묻어나지 않습니다! 관적임 없이 싹뚝하게!

샴푸타임 흰머리 커버용 리시리 컬러 샴푸

매일 하는 샴푸만으로 흰머리는 사라지고 머릿결은 윤기있고 촉촉하게 변신!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송현경제연구소장

‘개혁’ 도마에 오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는 사고 경중과 금액을 점수화하여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와 보상금액이 큰 사고를 낸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의 수지가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나온 것 같다.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에는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이 사고금액 기준에서 건수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도 전혀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사고를 유발해도 사고유발자의 책임비율이 100%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피해자도 전방주시 의무 미이행 등으로 20%에서 40% 정도 책임을 지운다.

많은이는 구조이다. 특히 비싼 외제차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했을 때 피해 운전자는 책임이 20-30%만 되도 부담금액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사고 책임비율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사고운전자끼리 서로 잘못이 없다고 싸우는 것이다.

개별 교통사고를 들여다보면 피해자도 조금은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대부분의 사고를 쌍방책임으로 처리하면 대형차와 외제차의 난폭운전과 교통사고의 증가, 사고 발생 시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

객석

전화 속 세한도



정진웅 해양수산부 대변인실 홍보담당 사무관

“우리 걱정 말고 너털이나 잘 살아……” 전화기 저 끝에서 아들의 고막으로 흐르는 엄마 목소리, 음색을 보니 오늘도 기다림 한 폭 치렀다

이웃집 자식 자람이 마실 다녀간 날이면 아버지는 밤새 구들장을 들볶았다. 엄마의 백단 속은 역모처럼 팔아 올랐다. 늘 그날이 그날인 시골집 안방엔 웅이 같은 아들 지켜보는 아버지의 발은 한숨이 풀풀 날랐다.



“그럼 술 조금 먹구 애들 잘 키워라” 딸각, 까지 낱아간 가지를 휘감는 맥놀이 “너털이나 잘 살아…… 너털이나 잘 살아……”

기자의 눈

보험설계사 기피 자초한 보험사



강구구 금융시정부/kkk@

최근 A화재 모 지점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설계사 구인이 목표한 만큼 이뤄지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A화재는 평소 설계사 중심 영업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설계사에 대한 대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겨온 보험사다. 이런 보험사도 설계사 기피 현상이 심각해져, 보험업계 전반적으로는 훨씬 상황이 안 좋을 짐작케 한다.

잠재고객을 발굴해야 하는 영업방식, 세간의 시선이 싸늘한 것도 문제지만 보험사 스스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기피를 자초했다. 신인 보험설계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B생명은 신인 보험설계사에 수당의 500%를 6개월 보장하지만, 두달 내 월 50만원 이상 실적을 내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빼앗는 등 바로 해촉(계약해지)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가 가족은 물론 보험설계사 본인이 연금 등 보험을 들어 실적을 겨우 맞췄다가 수당을 토해내는 일이 허다하다.

지난해에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한 20대 보험설계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신인 설계사는 회사의 장밋빛 청사진에 고액 연봉자를 꿈꾸며 입사했었지만, 1년도 채 안돼 꿈을 접어야 했다.

지난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 부담한 수액은 1200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보험설계사 기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보험설계사가 영업의 핵심기반이라고 말하면서 아끼고 상생하지 않으면 결국 외면으로 이어지고 보험사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보험설계사의 부재로 고아계약이 늘어나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독(毒)으로 보험사에 돌아올 것이다.

오상민의 현장

‘무쇠팔’ 최동원이 9월에 남긴 것



벌써 3년이 흘렀다. 2011년 9월 14일, 영웅은 거짓말처럼 우리 곁을 떠났다. ‘무쇠팔’, ‘영원한 레전드’, ‘한국 야구의 전설’이라 불리던 사나이, 고(故) 최동원이다.

최동원에게 9월은 모든 것을 잊어간 계절이지만 많은 것을 되찾아준 계절이기도 하다.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등진 후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등번호 11번은 롯데의 영구 결번이 됐고, 지난해 9월 부산 사직야구장에는 최동원 동상이 건립, 진정한 영웅으로 야구팬 앞에 다시 섰다.

그는 분명 영웅이었다. 경남고 2학년 이던 1975년에는 고교 최강 경복고에 노히트노런을 기록했고, 다음 경기인 선린상고와의 경기에서도 8회까지 노히트노런을 이어가 17이닝 노히트노런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는 당대 최고의 ‘원투펀치’ 김시진과 김일웅이 버티던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혼자서 4승을 책임지며 롯데에 우승을 안겼다. 무엇보다 그가 영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실함과 희생정신이 뒷받침된 천재였다는 점이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했고, 소외된 선수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그러나 최동원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은 각 구단의 강한 반발에 밀렸고, 선수협 결성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롯데와 최동원 사이엔 오해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했다. 결국 최동원은 그해 11월 삼성 투수 김시진과 맞트레이드 되는 수모를 겪었다.

최고 투수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최동원은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편견과 오해의 벽을 혼자서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롯데를 떠났다는 아픔보다 “최동원도 이제 한물 갔구나”라는 비아냥거림이 그를 더 지치게 했다. 결국

32살 청년 최동원은 1991년을 끝으로 야구장을 떠났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선수협 결성을 주도했던 최동원을 받아들 줄단은 어디에도 없었다. 2001년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코치로서 제 2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가 그라운드로 복귀하기까지는 꼬박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

당대 최고의 투수로서 구단을 위해 온몸을 던져 희생한 영웅이 아니던가. 그에게 은퇴 후 10년은 참으로 혹독하고 원망스러운 세월이었을 듯하다.

그는 현신의 아이콘이다. 죽도록 힘을 면서도 “팬장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도 그는 “팬장이”라고 말했다. 정말 팬장은 줄 알았다. 그는 세상의 온갖 서운한 감정마저 끌어안고 “팬장이”라는 말만 남긴 채 거짓말처럼 우리 곁을 떠났다.

영웅이 떠난 부산 사직야구장 한쪽 구석엔 지난해 조성된 최동원 동상이 그의 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생전에 그토록 바라던 롯데로의 복귀를 고인이 왜 서야 이룬 셈이다. 말 없는 동상은 영웅과 참 많이 닮았다. 동상은 말 대신 온몸으로 감속구를 풀어내며 영웅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쓸쓸한 현실을 질타하는 듯하다. 용기도 희생정신도 열정도 잃어버린 우리 시대 믿음 이기심을 향해 말 비아냥거림이 그를 더 지치게 했다. 결국

이투데이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광고입수, etc.

Large advertisement for the book '조선 왕들의 교과서, 『대학』으로 준비된 리더가 되라!' (Joseon Kings' Textbook, 'Daehak' as a Leader's Preparation). Includes book covers, author information (Lee Han-woo), and promotional text.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A66블록 아파트 1552가구 청약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방문객들이 전시관에서 청약 접수와 상담을 벌인 뒤 입지조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12~29층 14개동으로 전용면적 59㎡, 74㎡, 84㎡ 3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는 모든 평형이 2억원대로 3.3㎡당 평균 888만원이다. 뉴시스

# 규제 풀린 시장 15만가구 대방출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가 왔다

## Cover Story

###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9월까지 신규분양 순위 내 마감 80%  
내곡 최고 123대1... 미분양 속속 팔려  
청약 요건·가점제 완화 '9·1대책' 여파  
1순위자들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려  
강남·세종시 등 '알짜 물량' 경쟁 치열

LTV·DTI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7·24대책이 발표된 후 아파트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후 9월 현재까지 신규분양 시장은 순위내 마감에 성공한 단지가 80%에 이르고, 수도권 미분양 물량도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히 서울과 위례신도시, 경북 등 8월 한 달간 청약 접수한 10개 아파트 단지 중 2곳을 제외하고 총 8개 단지가 모두 순위내 마감했다.

지난 21일 분양한 서울 내곡지구 2·6단지는 157가구(일반공급 기준) 모집에 8281명이 몰려 평균 최고 12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또 서울 마곡지구 '힐스테이트 에코 동익'과 대구 달성군 '북죽곡 삼정그린코아 디베스트'도 청약경쟁률이 각각 최고 16.1대 1, 60.6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청약 1순위 요건 완화, 가점제 완화 등을 담은 9·1대책이 발표되면서 분양시장은 더욱 활황세를 보일 전망이다. 실제 대책이 발표된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안에 자리한 반도 유보라 아파트 4차 분양 홍보 부스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 현재 청약

1순위자들,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진 것이다.

성정옥 동탄 반도 유보라 4차 분양소장은 "8월 초부터 분양 홍보를 시작했는데, 이날 평소보다 두배 가까이 사람들의 문의가 왔다"며 "내년부터 지금의 1순위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으로 올해 안에 청약통장을 쓸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여세를 몰아 가을에 신규분양 단지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리얼투데이 조사 결과 추석 이후 전국에서는 189개 단지 15만6098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10만9772가구, 임대는 4만6326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12만9999가구)에 비해 29% 늘어난 수치다.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부산시 등 알짜 입지에 물량이 나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아파트를 선별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호기가 찾아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총 4개 건설사가 강남 중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히는 서초구에서 분양 대전을 펼친다. 많은 단지가 한꺼번에 선보여 청약 결과

또한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부산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분양 대결을 펼친다.

세종시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세종 2·2생활권 총 3개 구역에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석 이후 일제히 분양에 나선다. 그동안 세종시에선 중견업체 위주로 공급이 이뤄져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에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에서는 구로디지털밸리와 마곡지구, 문정지구 등에서 오피스텔이 대거 출시된다. 업계에 따르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공급 예정인 오피스텔은 3000여실이다. 최근 초저금리 호재와 분양보증에 따른 투자 안전성 개선 등으로 오피스텔 시장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과잉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입지와 상품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영관 기자 kwan@

# ‘가을분양’ 승자는?... 메이저사, 강남·세종·부산 격돌

## 대형 건설사 불꽃 튀는 하반기 ‘분양전쟁’

추석 연휴가 끝나자 대형 건설사들이 바빠졌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저마다의 브랜드를 내세우며 분양 성공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중순 이후부터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시 강남구, 세종시, 부산시에서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서울 강남에서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총 4개 건설사가 강남 중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히는 서초구에서 분양대전을 펼친다. 세종시에서는 세종 2-2생활권 총 3개 부지에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분양에 나선다. 많은 단지가 한꺼번에 선보여 청약결과 또한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부산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분양대결을 펼친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2개 이상 신규단지를 공급하는 건설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건설은 강남과 세종, 부산 등 3개 지역 모두에서 분양을 대기하고 있다.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2군데에서 분양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 (일반분양)	분양시기	시공사	문의번호
강남	래미안 서초(서초우성3차 재건축)	59-144	421(49)	9월	삼성물산	02-2043-8476
	아크로리버 파크 2호차	59-164	1612(213)	9월	대림산업	1600-9099
	서초 푸르지오 씨앗 (서초 삼호 재건축)	59-120	907(147)	10월	대우건설	1899-8784
	서초꽃마을*	59	116(116)	11월	현대엔지니어링	02-2134-7680
세종	세종2-2생활권 P3 메이저시티	59-120	3171	9월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044-862-7200
	세종2-2생활권 P1 세종 캐슬&파밀리에	74-100	1944	9월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1839-9333
	세종2-2생활권 P2	59-133	1694	9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1588-3633
부산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59-121	3149(1894)	9월	롯데건설	051-627-3000
	e편한세상 사하	59-84	1068	9월	대림산업	051-961-3300
	대신 푸르지오	74-115	959(597)	9월	대우건설	1679-1000
	래미안 장전	59-114	1938(1389)	10월	삼성물산	051-515-1959

\*출처 각 사, 위 내용은 각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는 주상복합

## 서초우성3차·신반포1차·서초 삼호 재건축 단지 이달 중순 일반공급

현대엔, 10년 만에 서초 ‘꽃마을’ 분양  
강남역 접근 좋아 높은 청약률 기대

## 세종시 2-2생활권 3개 구역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 수요 풍부

지방 분양시장 호황 견인한 ‘부산’  
롯데·대림·대우·삼성 대단지로 대결

◇뜨거운 감자 강남, 4곳서 분양 = 이번 하반기 분양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강남이다. 특히 서초우성3차, 신반포1차, 서초 삼호 등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강남 대표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형건설사의 유명 브랜드를 내걸고 일박일에 공급된다.

이 외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이 10년 동안 개발이 지지 부진했던 서초구 꽃마을에 첫 아파트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우성3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래미안 서초’(서초우성3차 재건축)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44㎡의 아파트 421가구 중 일반가구 분은 83-139㎡ 49가구다. 이 단지는 강남역 삼성 사옥을 비롯해 강남역 일대의 업무지구를 끼고 있고 인근의 우성1·2차와 함께 2000가구 이상의 ‘래미안타운’ 형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 강남·북과 판교, 용인을 잇는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 5분 거리다. 또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남역 서초 삼성타운을 비롯한 테헤란로 업무지구, 서초 법원 및 검찰청 등의 강남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인근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림산업 역시 이달에 신반포1차 20동과 21동을 재건축하는 ‘아크로리버파크’ 2호차를 일반분양한다. 작년 말에 분양된 1호차분과 합쳐 총 1612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전용 59-164㎡ 21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배치됐다.

도보 5분 거리의 9호선 신반포역을 비롯해 3·7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다음달 서초 삼호 아파트를 재건축해 서초 푸르지오씨앗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 59-120㎡의 아파트 907가구 중 일반 가구 분은 147가구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1월 서초동 꽃마을 5구역에 전용면적 59㎡ 아파트 116가구를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를 선보인다.

꽃마을 5구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인접해 있는데다 대법원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요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세종시에 대형업체 브랜드 총 6809가구 분양 = 세종시에서도 이달에 2-2생활권 P1-P3 등 3개 구역에서 대형건설사가 일제히 분양대결에 들어간다.

그동안 세종시는 증권업체 위주의 공급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번 대형 업체들의 분양 물량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2-2생활권은 향후 대규모 백화점 등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등 세종시의 상업중심지역이 될 2-4생활권과 세종시 신교통수단인 BRT역을 경계로 접하고 있어 교통, 상업, 교육 등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설계 공모를 통해 공급되는 단지들이어서 디자인이 기존 아파트와는 차별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대기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P3 구역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4개사가 시공하며 이달 중 분양한다.

이 구역은 전용면적 59-120㎡ 등 총 3171가구로 구성돼 2-2생활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선호도가 높은 84㎡ 이하 중소형 비율이 74%를 차지한다.

아울러 P1 구역에서는 롯데건설·신동아건설이 총 1944가구를 공급하며, P2 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총 1694가구를 내놓는다.

◇부산, 이번에도 지방 분양시장 호황 이끌까? = 올 상반기 분양된 대부분의 단지가 청약 마감을 기록해 지방 분양시장을 호황으로 이끌었던 부산에서도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공급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반기에 선보이는 4개 단지 모두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이들 사업기간의 분양 성지도 관련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부산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롯데건설이 이달 부산의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대연동 일대 매머드급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남구 대연2구역에 재개발한 ‘대연 롯데캐슬레전드’는 지하 6층-지상 35층, 총 30개동 규모를 갖춘다. 전용면적 59-121㎡, 총 3149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초대형 단지로 구성되며 이 중 일반에는 1894가구가 분양된다.

대림산업 역시 같은 달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e편한세상 사하’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전용 59-84㎡ 총 1068가구로 구성되며 단지 인근에 자가용 10분 거리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단지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우건설도 같은달 서구 서대신동 1가 일대에 ‘대신 푸르지오’를 분양할 계획이다. 총 599가구 중 5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 74-115㎡로 이뤄지며 지하철 1호선 서대신동역과 동대신동역과 도보권이다.

삼성물산은 오는 10월 부산 금정구 장전3구역에 재개발한 ‘래미안 장전’을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8층, 12개동, 전용면적 59-114㎡로 구성됐고 총 1938가구 중 138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박태진 기자 tjippo@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설계 기술력 **뱅**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10번 아이언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친다.

###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극초고반발 기술 + 우드형 헤드설계로 인해서 40yd 더 나간다.
- M.O.I가 높고 Sweet Spot이 넓어서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총 중량이 더 가볍고 헤드밸런스가 가벼워서 스윙이 쉽고 편하다.
- 트랙맨(TrackMan) 분석결과 백스핀이 1.12배 더 증가했다.
- 헤드의 솔이 넓기 때문에 뒤땅이 없다.
- 슬라이치기 되기때문에 엘보우가 없다.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WOOD · Hybrid IRON)**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538) 강남점 (02-3479-1532) 경기점 (031-895-1845) · 사우스케이프 인스클럽 · 이모 cc · 신원 cc · 반포골프백화점 (02-534-0220)

영등포 (02-2639-1536) 인천점 (032-430-1563) 의정부 (031-8082-0712) · 안양베네스 cc · 안양베네스트먼트상 · 아사아나 cc

충청점 (041-840-5753) 부산점 (051-745-1823) 마산점 (055-240-1406) · 동래베네스 cc · 센쥬리2 cc · 해바치 cc 서울

광주점 (062-361-1402) 광주점 (062-361-1402) · 가평베네스 cc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537-3 (011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 알짜물량 어떻게 찾나

### “도로건설 계획 등 지역발전 따져야”

단지 입지가격·상품 확인은 기본  
재개발 기대... 하향 지원도 좋아

이달에는 2000년대 9월 중 최대 물량이 쏟아진다. 공급되는 많은 물량 중 알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옥석 고르기를 잘 하기 위해선 미래가치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닥터아파트 조사가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분양계획 물량은 모두 53곳, 4만294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대 들어 9월 물량 중 최대이며 올해 들어서도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9·1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의 회복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청약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수도권 20곳, 1만1566가구 △광역시 12곳, 9283가구 △지방도시 21곳, 2만2997가구 등이다.

권역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9·1대책” 발표로 분양시장은 인기지역, 인기단지에 대한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분양단지의 입지, 상품, 가격 등을 꼼꼼하게 쟁겨 본 후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권 팀장은 “분양을 받으면 2-3년 후에 입주하기 때문에 향후 도로건설, 교통수단 증편 등 해당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또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적정한지와 중도금 납입 등 자금운영 부문, 시대마다 평형의 인기가 달라지는 만큼 평면 구조가 다양하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인기지역에 대해 상향 지원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당 단지의 발전 가능성을 점쳐 하향 지원하는 것도 알짜 물량 고르기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을 골라야 한다”며 “위례, 동탄, 하남 미사 등 기존에 인기 좋았던 지역을 위주로 살펴보고 기존 미분양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위주의 물량을 알아봐야 한다. 또한 기존 구도심에서는 위치와 교육, 교통 등 최적의 입지를 갖춘 재건축, 재개발 물량도 노려볼 만하다”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jippo@

# 세종시 2-2생활권, 디자인 특화 “아파트가 ‘아트’네”

## 대형건설사 일제히 분양 ‘자존심 대결’

추석 이후 세종시에서 대형 건설사의 분양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세종 2-2생활권 총 3개 구역에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달 일제히 분양에 나선다. 그 동안 세종시는 증권업체 위주의 공급이 이뤄져 이번 대형 업체들의 분양 물량에 관심이 높을 것이라 판단이다.

◇세종시 알파 생활권, 메이저 브랜드 앞세워 혈투= 세종시에서 2012년 이후 3년여 만에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가시화되는 곳은 다름 아닌 세종 2-2 생활권이다.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중앙행정타운과 가깝고 한솔동 초등학교와 황후 대규모 백화점 등 유통시설이 들어서 세종시의 상업중심지역이 될 2-4 생활권과 세종시 신교통수단인 BRT역을 경계로 접하고 있어 교통, 상업, 교육 등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곳이다.

또한 2-2생활권은 세종시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설계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단지들이라 기존 아파트와 차별되는 디자인이 강점으로 꼽힌다.

세종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는 유난히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가 적은 편이다”며 “하지만 2-2 생활권 4개 구역은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20여개 건설사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 선발된 단지인 만큼 기대수요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2생활권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내 기존 브랜드 아파트들의 시세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이 오른 곳도 눈에 띄어 기대가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기준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는 첫 마울래미안7단지 전용 114㎡의 경우 3.3㎡당 988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총 4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2-2 구역에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구역은 P1-P3 등 총 3개 구역으로 일제히 이달 분양에 나선다. 특히 세종시 2-2 첫 분양단지인 P4구역의 ‘세종 예미지’가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실시한 이전기관 종사자 1차 특별공급 청약신청에 특별공급분(336가구)보

## 설계공모로 조성 ‘특별건축구역’ 교통·상업·교육 중심지로 떠올라

## P3 최대 규모... 3171가구 구성 대우·현대산업 등 4개사가 시공

## P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롯데·신동아 총 1944가구 내놔

다 많은 354명이 접수를 마치는 등 인기를 보여, 이후 분양되는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2-2생활권 내 최대 규모로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곳은 P3구역으로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4개사가 시공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59-120㎡ 등 총 3171가구로 구성됐으며 선호도가 높은 84㎡ 이하 중소형 비율이 74%를 차지한다.

P1구역에서는 롯데건설, 신동아건설이 함께 분양할 예정으로 총 1944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전체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으로 계획하고 통합 커뮤니티 시설은 건강과 문화, 교육센터 구역으로 나눠 계획했다. 이 밖에 P2구역에서는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이 총 1694가구를 내놓는다.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전망했다. 2-2생활권에서 제일 먼저 분양되는 P4구역의 ‘세종예미지’의 경우

3.3㎡당 평균 859만-899만원대로 분양가가 확정됐다.

한솔동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변 시세와 P4블록 분양가,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 가치를 판단해 볼 때 이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에도 몇 십 통씩 문의 전화가 올 만큼 높은 청약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온도차= 하지만 세종시 내에서도 입지조건에 따른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 이는 지역 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7월 전국 땅값 통계를 보면 세종시는 0.54%가 상승해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는 올해 들어서도 4월(0.61%)에 이어 월 단위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는 3생활권 공사 진척, 장군면 전원주택 예정 단지로의 자본 유입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1주 전(18일)보다 0.1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대비 누적 하락률 1.49%로 전년(1.7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

세종시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한꺼번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개발 수요는 커지고 있어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아파트 시장도 상승 반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세종시 2-2생활권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분양물량** ※ 출처: 각 사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일반분양)	분양시기	시공사	문의번호
세종시 2-2생활권 P3 메이저시티	59~120	3,171	9월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현대엔지니어링	044-862-7200
세종시 2-2생활권 P1 세종 캐슬&파밀리에	74~100	1,944	9월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1899-9333
세종시 2-2생활권 P2	59~133	1,694	9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1588-3633

※ 위 내용은 각 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반기 ‘오피스텔’ 분양 붐물

# 부산·광명·마곡지구 등 전국 7곳 역세권·배후수요 풍부 ‘수익명당’

가을 성수기가 시작된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타워아파트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을 확정된 오피스텔 물량은 전국 7곳, 3450실로 집계됐다. 여기에 최근 각종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까지 개선되면서 하반기 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가을 분양시장에서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오피스텔 분양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호탄을 쏘는 포스코건설은 추석 이후 부산시청 바로 옆에 ‘부산 더샵 시티에비뉴II’를 분양할 예정이다.

아파트 216가구(전용 59-84㎡), 오피스텔 230실(전용 29-64㎡)로 구성되는 이 단지는 지난해 분양한 ‘부산 더샵 시티에비뉴’와 함께 총 1227가구 규모의 ‘더샵’ 멀티주거단지를 이루게 된다.

단지는 인근에 부산지방경찰청, 국세청 등 행정기관 26개소가 밀집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바로 앞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대우건설은 10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광명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아파트 640가구(전용 59-103㎡), 오피스텔 143실(전용 24㎡)로 구성되며 지하철 1호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광명역이 도보 거리다. 인근에 수변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대해도 된다.

강서구 마곡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예코 동익’을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5층, 전용면적 22-44㎡, 총 899실 규모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예코 동익’은 LG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하는 LG사이언스파크와 인접해 있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9호선 마곡나루역과 광명철도 마곡역(예정)도 가까이 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구입에 앞서 공실의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면 월세 저항이 최대한 낮은 실질적 임대 수요를 역세권과 연



부산 더샵 시티에비뉴II 투시도.

## 포스코 ‘부산 더샵 시티에비뉴II’ 경찰청·국세청 등 행정기관 밀집

## ‘광명 푸르지오’ 지하철 도보이용 현대 ‘에코동익’ 마곡 LG사옥 위치

계해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도권은 경우 소 비력이 탄탄하고 젊은층 수요가 풍부한 마곡, 판교, 상암, 문정,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을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오피스텔 육식을 가릴 때는 입주자의 편의성에 심혈을 기울인 상품을 찾아야 한다. 내·외관 마감재를 비롯해 기계식보다는 자주식 주차시설, 피트니스 시설, 호텔식 서비스 등 질 높은 수준의 상품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급 현황에 대한 올바른 파악도 놓쳐서는 안 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막연히 공급 과잉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며 “관심 지역 주변의 매매, 월세 등의 매물 현황을 파악하면 공급 현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명관 기자 kwan@

**THINKWARE**

- 64GB UHS-I 메모리 공식 지원
- 안전운행 도우미
- 전·후방 자동 영상 밝기 조정
- 브레이크 작동 기록
- WDR & Super Night Vision
- 2중 안심저장 Dual Save
- 음성인식 시스템
- 전·후방 SONY CMOS 센서 적용
-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LDWS
- 전·후방 Full HD & Full HD 화질

세상이 기대하는 이 모든 기술을 담아

Outstanding, 모두를 압도하다

**아이나비 QXD900 View**

- Full HD & Full HD: 전·후방 1080P Full HD 및 소니 CMOS 센서 탑재로 뛰어난 화질과 넓은 영상 영역을 확보
- LDWS: 주행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 이탈을 경고, 경보를 울려주는 스마트한 주행 보조 시스템
- 2중 안심저장: 강한 충격 시 녹화 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하며 내·외장 메모리에 동시에 저장
- 음성인식: 안전운행을 위해 경보 발생 시 음성인식을 통해 녹화 중인 영상에 녹화되지 않는 녹화 구간을 지정할 수 있음

■ 전·후방 1080P Full HD를 지원하며, 동시 내장 32GB 메모리를 탑재하여 대용량 영상이 가능합니다. ■ 20000 View에 채용된 LDWS 기능은 주행 중인 도로의 차선 인식하여 차량 차선 이탈 경고 및 안전 시 경고음과 함께 Full HD & Full HD로 녹화 가능. ■ 강한 충격을 받을 시 생성되는 이벤트 파일을 4GB Hand Pash 메모리와 4GB MicroSD 메모리에 동시에 자동으로 저장하여 특별한 손상을 방지합니다. ■ 수동으로 촬영 종료, LCD 화면 ON/OFF 및 전후방 녹화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인체공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 SONY Exmor CMOS 센서와 WDR기능으로 완벽한 영상 구현. ■ 전·후방 카메라 개별 밝기 조정. ■ GPS를 통한 단속지점 안내, 안전운행 도우미. ■ 브레이크페달의 사용여부 저장.

**아이나비**

현대증권,  
단 한 장의 카드로 세상 카드를 압도하다!



# able Card

## 카드생활의 Remake Asset 카드생활에서부터 자산관리가 시작됩니다



### 할인 서비스 4가지 중 내가 선택한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혜택을!

- 선택1) SK주유소에서 주유 시 OK 캐시백 16배 적립(80원/L)
  - 선택2) 대형할인점 15% 할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선택3) 백화점 15% 할인(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롯데)
  - 선택4) 전국택시/KTX 15% 할인
- \*연 4회 변경 가능, 선택 1~4)별 월간할인한도 이외에 전월 사용 실적에 따른 할인한도 차등 적용  
\*15% 할인의 경우 횡수(일/월) 및 최대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 포인트 서비스 OK캐시백 포인트와 함께 재 탄생한 able point!

- 현대증권 포인트와 OK캐시백 포인트가 합산되어 사용 및 적립되는 포인트제도
- OK캐시백 포인트를 CMA통장에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현금상환서비스
- able point는 전국 45,000여 개의 OK캐시백 가맹점, able 포인트를, 현대증권 업무수수료로 결제 가능

### 금융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출금,이체,송금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의 당사 및 타사 이체 수수료 무료
  - 당사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 지점 창구 송금 수수료 무료
-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시 적용

### 특별 서비스 체크카드에 신용카드의 혜택을 입히다!

- 전국 50여개의 able 멤버십 제휴처에서 최대 40%까지 현장 할인
- (서비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며, 사업장 별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카드문의 : 1588-6611 홈페이지 : www.hdable.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455호(2014년 2월 6일~2015년 1월 23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위기의 부산항 '비상경영'... '방만' 공기업 첫 정상화



고강도 경영개선·고통분담 '勞社합의' 휴직·사망 경조금 등 제도 대폭 손질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 38.2% 삭감 임기택 사장 "모범 공기업 달성 노력"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방만경영 해소 공기업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방만경영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 본인사망 경조금,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가산금 지급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추가로 손질했다.

◇휴직·사망 경조금 등 방만경영 오해 복리후생제도 대폭 손질 = 부산항만공사는 지난달 21일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방만경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리후생제도 10개 항목에 대해 추가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 간 협의로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개선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기택 사장은 최근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자세히 설명한 후 강도 높은 경영 개선과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개선 항목은 방만경영 기관 탈출 프로세스인 비상경영대책 위원회를 정상화지속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외부 자문기관의 진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과 서보성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복리후생비 개선과 부채 관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사 공동 선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을 통해 발굴한 것들이다. 우선 공사는 전제지번 또는 전청 등의 사유로 휴직했을 때 3개월간 연봉 월액을 지급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사망 시 주는 경조금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때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 외에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직 중 사망 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가산 제도를 폐지했다. 조합원의 근로시간 면제 관련 규정과 휴가·휴직 시 급여 지급기준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1호...1인당 복리후생비 38.2% 삭감 =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월 노사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개선을 이뤄냈다. 공사는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자 1인당 복리후생비부터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535만7000원에서 올해 331만3000원으로 38.2% 삭감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조항을 개정하고 15개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 외 사망 시 6개월 또는 1년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연간 최대 720만원에서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180만원으로 낮추고 소속 직원 외 직계 준비생 1명에게 건강검진비 40만원을 지원하던 것은 직원 가족이 아닌 소속 직원만 36만원 내 지원으로 개선했다.

경조사비 지원 대상도 직계 준비생으로 한정하고 각종 기념일에 총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60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과 선물세트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월 50만원 지급을 폐지하고 주택자금과 생활안전자금 융자 이자율 2% 적용을 시중금리 적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본인, 배우자, 자녀 대학교·대학원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본인과 자녀에게만 적용하고 대학원 학자금 지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노사 간 신뢰 기반 고통 분담 합의...부산항 위기 극복 단초 마련 = 애초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북항 물동량 감소와 운영사의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정돼 부산항의 위기가 더 악화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특히 복지 후퇴와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조기 경영개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며 노조는 복지회복을 위한 기관장 각서를 요구했다. 또 상급 노조에서 연대 투쟁 지침이 내려오고 개별교섭 및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라는 요구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기관장과 노조집행부 간의 긴밀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물동량 감소와 부산항 파업 위기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즉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노조 집행부와 의 평소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노사 간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장과 노조 간의 이면합의가 불가하다는 원칙도 끝까지 지켜냈다.

이와 함께 기관장과 노조 집행부가 공동으로 직원과의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직원 설득에 나섰으며 실무협상 28회, 설명회 5회, 직원 간담회 8회 등 릴레이 협상과 노조위원장은 상급 노조 직접 방문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 2월말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개선 절차를 완료했다.

노사가 경영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전인 작년 10월에도 부산항 위기에 대응해 임원들이 자진해서 임금동결을 결의하고, 각종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비상경영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임기택 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범 공기업,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 박승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장애인 최고 복지는 일자리" 고용촉진 박차

진로 컨설팅·사회성 교육...내달 충무로 '서울 센터' 개소 장애인 기능대회·보조공학기기 박람회도 개최 예정

박승규(사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승규 이사장은 1994년 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회 초대 회장을 비롯해 최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를 역임할 만큼 장애인 복지와 고용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 또한 30대 초반부터 척추가 굳어지는 불치의 병을 겪은 장애인이다. 그만큼 박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 속에서 박 이사장은 최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펼쳐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 '워크투게더센터'를 들 수 있다. 이는 장애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진로 설계 컨설팅, 사회적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고용' 사업과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이사장의 목표는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더욱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도 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주요 도심지에 맞춤형훈련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 이사장은 첫 출발로 올해 10월 서울 충무로에 '서울맞춤훈련센터'를 개소한다. 직업훈련의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능력을 갖춘 장애인의 사회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는 2013년 말 기준 2.48%인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임기 내 3%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단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고용의 무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직무발굴, 맞춤형훈련, 취업알선 등의 고용 서비스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시설 설치 용자-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는 근무환경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33개의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박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일에도 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전

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기능 개발을 장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관심을 유도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어 10월에는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승규 이사장은 이들 대회가 국민이 장애인 고용에 더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공단의 존재 의미는 공단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기업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단의 모든 업무를 고객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불편한 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일하고 싶은 장애인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장애인 고용 기업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뒀 공단을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김희철 기자 h9913@

HYUNDAI DEPARTMENT STORE |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8월 OPEN)

ROYAL MILE

그 남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 로열마일

프리미엄 남성잡화 편집숍

ANDERSON

ANDREA D'AMICO

BULLETTO

CA4LA

CYPRIS

ETTINGER

ESPERANTO

L'DONOVAN

MAISON de HIROAN

MSPC

ORCIANI

OROBIANCO

RIMOWA

STEFANO MANO



# M&A 소식에... '대원전선' '한국사이버결제'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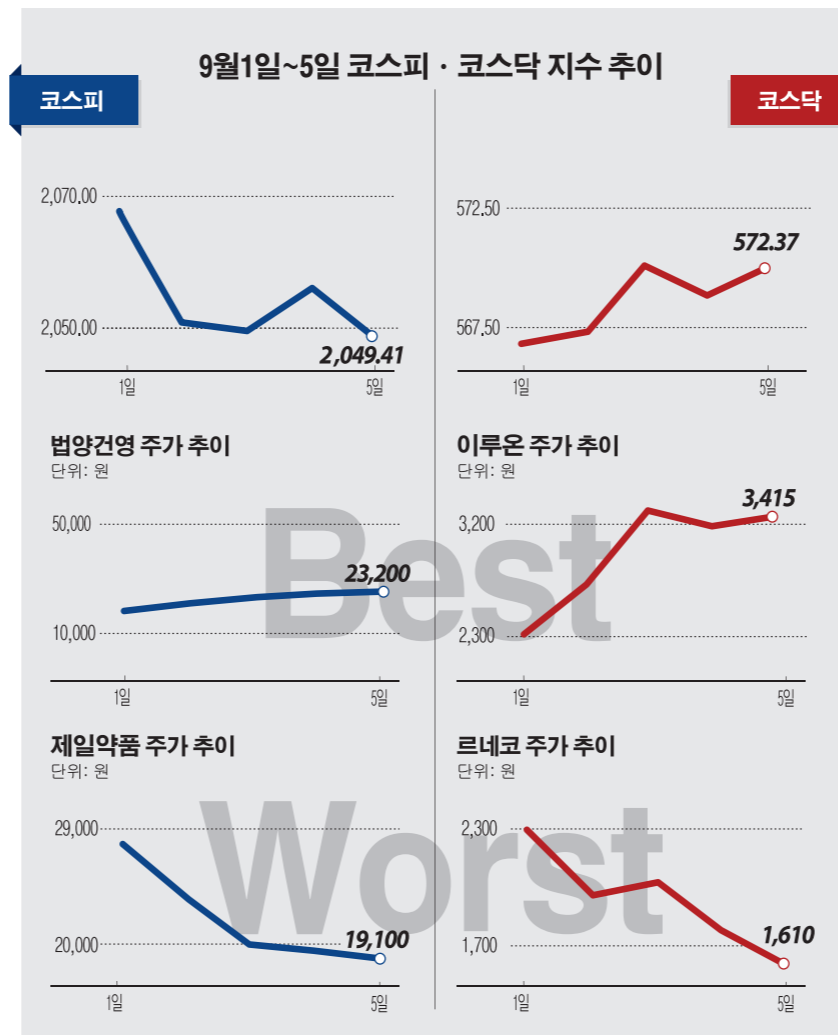
**베스트&워스트**  
**9월 1~5일**

유가증권시장은 지난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 심리가 유입되며 약세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며 국내 수출주에 대한 우려로 코스피 지수는 2050선 아래로 떨어졌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첫 주(1~5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9.13포인트 하락한 2049.4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2.17포인트 오른 572.37로 마감했다. 지난 3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571.40)를 불과 이틀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이 같은 코스닥시장의 강세는 외국인인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주 외국인은 985억원의 순매수를 보인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372억원, 46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범양건영 60% 폭등... 대원전선 동전주 탈피 = 코스피 지수의 하락에 속에서도 주가 상승이 두드러진 종목은 범양건영이다. 범양건영은 1일 1만4150원이었던 주가가 63.96% 폭등해 5일에는 2만3200원까지 뛰었다. 대원전선은 종속회사인 대명전선을 통해 89억5000만원 규모의 전선 생산공장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동전주를 벗어났다. 주초 887원이었던 주가는 1200원으로 35.29% 뛰어올랐다. F&F와 인디에프 등 섬유류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었다. F&F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2.15% 늘어났다는 소식이 주가를 31.82% 상승시켰다. 인디에프 역시 주초 876원이었던 주가가 한 주간 22.15% 상승하며 1070원으로 마감했다.

신공영도 급락 =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 하락이 가장 큰 종목은 제일약품이다. 제일약품은 주초 2만9500원이었던 주가가 1만9100원까지 무려 35.25% 떨어졌다. 제일약품은 지난 4일 한국거래소의 주가 급락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당사는 현재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 공시할 사항이나 공시가 누락된 사항 없다"고 답변했으나 주가 급락을 막지 못했다. 한신공영은 회계처리 오류로 과거 4년간의 흑자를 적자로 수정했다는 정정공시를 낸 후 주가가 한 주 동안 33.44%나 빠졌다. 한신공영은 지난달 29일 정정 공시에서 지난해 152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을 5억6000만원의 순손실로 바꿨다. 2012년 132억원의 당기순이익도 27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며 2011년의 당기순이익은 109억원에서 11억원 적자로 변경됐다. 2010년



섬유의복株 강세... 'F&F' '인디에프' 상승 3·4위  
35%나 떨어진 '제일약품'... "주가급락 사유없다"  
4년간 적자를 흑자로 공시한 '한신공영' 33% 폭

엔케이는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일주일간 20.47% 상승했다. 엔케이는 2분기 영업이익 72억7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16억3400만원으로 30.6%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6억2200만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SH에너지화학과 에이엔피는 지난주 각각 19.45%, 16.79%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동전주 탈피에 성공했다. 에스엘은 실적 향상 기대감이 주가가 2만원에서 2만3150원으로 15.75% 올랐다. 조수흥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5일 "미국법인 가동률 상승에 따른 손익 개선과 분사 수익성 안정화로 실적 추정치를 높여잡는다"며 "2014년과 2015년 예상순이익(EPS) 추정치를 기존 대비 각각 18.5%, 13.8% 상황 조정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종근당바이오(15.69%)와 중국원양자원(15.29%) 등도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제일약품 35% 하락... 회계 오류 한

은 57억원 흑자에서 184억원 적자로, 2009년도는 62억원 흑자에서 58억원 적자로 정정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신공영의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감리에 착수했다. 이필름은 종속회사 이화파트너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241만주를 무상감자한다는 소식이 주가가 18.81% 하락했다. 동부건설은 동부발전당진의 매각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주가가 급락했다. 주초 1530원이었던 주가는 5일 1280원으로 16.34% 급락한 채 마감했다. 동부발전당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삼탄은 잔금 2430억원 납부를 앞두고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동부발전당진매각으로 회사채 상환 자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좌초되며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한일이화는 1일 2만3400원이었던 주가가 15.81% 빠져 5일 1만9700원에 장을 마쳤다. 김유진 기자 eugene@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5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범양건영	62	14,150	23,200	63.96
대원전선	85	887	1,200	35.29
F&F	179	8,800	11,600	31.82
인디에프	63	876	1,070	22.15
엔케이	218	4,300	5,180	20.47
SH에너지화학	117	879	1,050	19.45
에이엔피	45	929	1,085	16.79
에스엘	784	20,000	23,150	15.75
종근당바이오	98	16,250	18,800	15.69
중국원양자원	107	1,210	1,395	15.29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5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제일약품	284	29,500	19,100	-35.25
한신공영	101	15,250	10,150	-33.44
이필름	44	1,675	1,360	-18.81
동부건설	67	1,530	1,280	-16.34
한일이화	532	23,400	19,700	-15.81
이필드	174	2,420	2,050	-15.29
사조해피	122	19,900	17,100	-14.07
이수화학	166	12,550	10,850	-13.55
성신양회	225	10,600	9,260	-12.64
크라운제과	288	215,000	189,000	-12.09

※자료: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5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이투은	33	2,335	3,415	46.25
원풍물산	76	1,605	2,255	40.50
코리아나	143	2,575	3,575	38.83
한국사이버결제	208	11,550	15,850	37.23
코스온	187	9,890	12,650	27.91
보령메디칼	109	8,150	10,250	25.77
씨유메디칼	56	6,830	8,410	23.13
안국약품	208	13,200	16,150	22.35
넥스지터	564	13,100	15,950	21.76
경남제약	27	2,205	2,670	21.09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5일 시가 총액	증가(원)	증가(%)	주가등락률(%)
르네코	29	2,325	1,610	-30.75
유비벨록스	55	12,100	9,100	-24.79
바이오텍스	35	4,120	3,150	-23.54
네패스	115	6,900	5,290	-23.33
아-글 벳	29	5,120	4,050	-20.90
데코테이션	41	1,365	1,100	-19.41
윌텍스	23	2,140	1,725	-19.39
한솔신텍	58	2,690	2,170	-19.33
성창오토텍	31	5,110	4,200	-17.81
태양기전	25	4,055	3,360	-17.14

※자료: 에프앤가이드

◇공간정보 시장 성장 기대... 이루은 40% 급등 = 지난 한 주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은 이루은이다. 이루은은 1일 2335원에 장을 시작해 5일 46.25% 상승한 3415원으로 마감했다. 이루은은 전 세계 공간정보 시장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루은은 계열사인 이루은LBS가 택배, 물류 등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적용 중이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이 공간 정보를 활용한 IT 시장이 활성화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원풍물산이 40.50%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주가등락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원풍물산은 지난 4일 한국거래소의 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최근의 주가급등과 관련해 공시할 중요

◇르네코 최대주주 변경에 30%대 급락 = 9월 첫 주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은 르네코로 주초 2325원이었던 주가는 주 후반부에 1610원까지 30.75% 하락했다. 르네코는 지난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과 이행 완료에 따라 최대주주가 기존 에스엘엔피 외 2인에서 더슈퍼클래스제로 변경됐다.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주가의 낙폭을 키운 종목도 있다. 유비벨록스는 1일 1만2100원이었던 주가가 5일 9110원으로 24.79% 빠졌다. 유비벨록스는 2분기 영업손실 3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네패스 역시 2분기 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주가가 23.33% 급락했다.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도 있다. 바이오스텍은 지난 4일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

'이투은' 내년 공간정보 시장 150조원 전망에 46%↑  
더슈퍼클래스제로 최대주주 변경 '르네코' 30%↓  
2분기 적자 기록 '유비벨록스' '네패스' 하락 2·4위

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중국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코리아나는 지난달 29일 2575원이었던 주가가 3575원으로 38.83%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보령메디칼은 주가가 8150원에서 1만2500원까지 25.77% 올랐다. 이는 중국 중추절 연휴를 시작으로 인천 아시안게임, 국경절이 이어지며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업체와 손을 잡으며 주가가 상승한 종목도 눈에 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NHN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등했다. 1일 1만1550원이었던 주가는 37.23% 상승해 5일 1만5850원에 마감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전자상거래 사업 강화와 투자를 위해 한국사이버결제의 주식 510만주(지분율 30.15%)를 641억9000만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식으로 91억2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1일 4120원이었던 주가가 5일 3150원으로 23.54% 하락했다. 아-글벳 역시 지난달 29일 시실자금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12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후 주가가 한 주간 20.90% 빠졌다. 지난주 주가하락률 6위를 차지한 데코테이션은 주초 1365원이었던 주가가 19.41% 급락해 1100원을 기록했다. 윌텍스는 최근 전환사채(CB)에 대한 풋옵션 리스크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우려에 주가가 한 주간 19.39% 하락했다. 한솔신텍은 1일 주가가 2690원을 기록한 뒤 19.33% 떨어져 5일 2170원까지 내려왔다. 성장오토텍은 올해 코스닥 상장사 중 상반기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으로 꼽히며 급락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99.43% 감소하며 주가 역시 한 주 동안 17.81% 빠졌다. 김유진 기자 eugene@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를 땀 어렵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경제학도 그렇습니다. 처음 마주치는 약간의 어려움, 그것만 넘으면 됩니다. 나를 위한 경제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하준 지음 | 김희정 옮김 | 16,800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PROSPECT가 뽑은 올해의 사상가 TOP 10  
39개국 36개 언어로 소개된 밀리언셀러 저자  
2003년 워르달상 수상  
2005년 레온티에프상 최연소 수상  
2011년 포니정학상 수상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다리 걸쳐가기, 등

**나를 위한 경제학을 시작할 시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 신세계푸드, SVN 합병... '두 토끼' 잡은 신세계

(신세계조선호텔 자회사·제과업체)

## 사업다각화 가능한 318개 영업매장 확보

## 손자회사 정리... 지배구조 간편화 효과도

신세계그룹이 신세계푸드와 신세계에스브이엔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업망 시너지 효과와 지배구조 간편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계열사인 신세계조선호텔의 자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푸드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52.11%에서 54.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큰 비용 없이 사업 다각화와 영업망 확대를 위한 수백개의 상설 매장을 확보하게 되는 등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29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이명희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이마트와 신세계를 지배하고 두 회사가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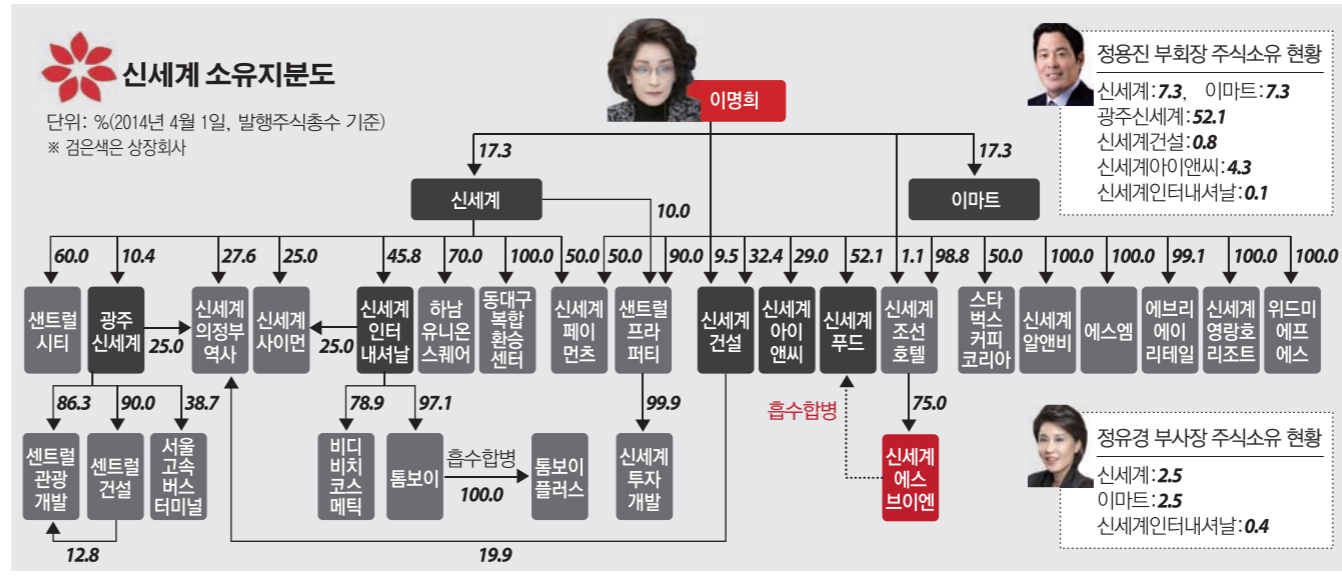
신세계는 1-6-5-1 체제이며 이마트는

면 식품 유통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수백개의 피합병회사의 매장을 손쉽게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마트는 이마트는 손자회사를 두지 않는 2단계 지배구조로 변경됐다. 게다가 이마트는 지배체제하에 둔 신세계건설이 보유한 신세계의정부부역사의 지분 19.9%를 정리할 경우 신세계와 완벽한 계열분리 가능한 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이 지배권 승계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손자회사 정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29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이명희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이마트와 신세계를 지배하고 두 회사가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세계는 1-6-5-1 체제이며 이마트는



1-11-1의 지배구조를 띠고 있다. 나머지 계열사인 광주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이 최대주주이며 신세계페이먼츠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5대5구조를 가지고 있다. 순환출자 구조 부분에서도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의정부부역사 지분 19.9%를 정리하게 되면 이마트가 신세계와 계열분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직원들도 쓸쓸한 주머니 돈을 쟁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합병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금화가 손쉬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우리스주조합은 현재 회사의 지분 6.8%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스주조합이 흡수합병으로 쟁기게 신세계푸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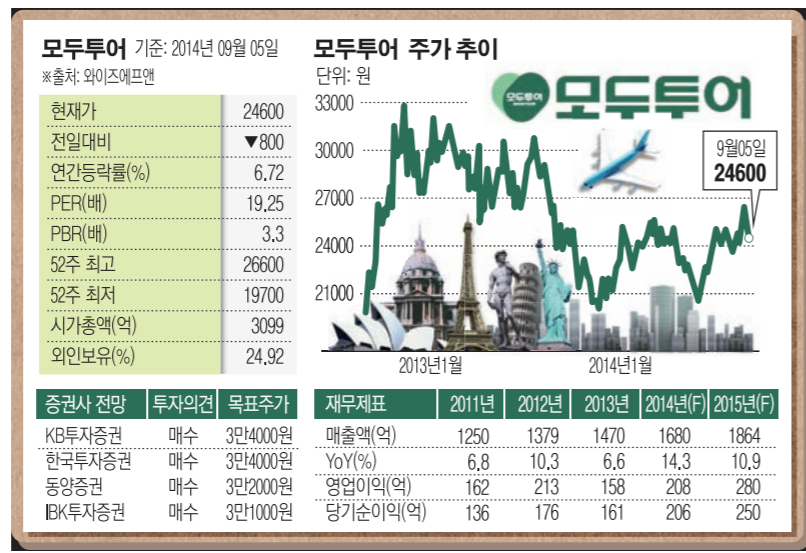
식은 3만여주로 현재 시가로 35억원 수준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세계 그룹은 국내 30대 그룹 중 지배구조가 가장 간소한 곳"이라며 "향후 신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들의 흡수합병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 원화강세·한류열풍 타고 '콧노래'

**SP 종목분석**  
모두투어

2분기 이어 수익개선세



모두투어가 올해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인한 실적 레벨업 효과로 하반기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최대 상승기에도 지난 2분기처럼 유럽지역 예약률의 고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상품 믹스 개선 효과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강세, 항공예약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별자유여행시장(FTT) 마케팅 등의 강점을 내세워 업그레이드될 것이라 전망된다.

하지만 위기는 또 찾아왔다. 2011년 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률과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며 여행객 수요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하반기 원화 약세까지 겹치며 실적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2011년 매출액은 1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5% 증가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162억원으로 16.49% 감소했다.

2012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패키지 여행 수요 증가, 신규 호텔 사업의 성장성, 자회사인 모두투어인태너셔널의 인바운드 사업 활성화 등으로 실적은 개선세를 나타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32% 늘어난 1379억원, 영업이익은 31.48% 증가한 21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패키지와 개별 티켓의 저가 상품 비중 확대로 평균 판매단가가 하락세가 이어지며 실적 상승세는 주춤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0% 늘어난 1470억원, 영업이익은 25.82% 줄어든 158억원을 나타냈다. 시장점유율도

9.9%로 2012년의 10.1%보다 낮아졌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362억9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9억18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불륨인센티브(VI) 정책에 따라 인상했던 대리점 지급수수료율과 임금제도 변경으로 늘었던 인건비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됐다. 고 마진 상품 판매 증가,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절감 등 영업레버리지가 확대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내국인의 여가와 레저 문화 확대로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장거리 여행 수요 상승으로 구조적인 수익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외형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강엔진, 모바일 앱 출시, 여행박람회 개최 등에 따른 개별여행상품 판매 확대로 하반기 점유율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여행심리 회복세가 수출객수가 증가하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하정희 기자 jcha@

# 하이셀, 인쇄전자 특허기술 양산라인 위해 유증

하이셀이 인쇄전자 특허 기술을 이용한 ITO 센서 등 전자부품 원천소재 양산라인의 신설을 위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증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하이셀은 지난 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쇄전자 신제품 양산설비신설과 부채상환 등 운영자금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24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증권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며 발행예정 주주는 3천만주, 발행예정가는 817원으로 기준주가 대비 30% 할인 발행된다.

대표주관사는 이트레이드증권이며 주주배정 후에 실시하는 일반공모에서 실권된 주식 전부를 주관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배정기준일은 9월 30일로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68470905주의 비율로 신주가 배정될 예정이다.

하이셀 관계자는 "3년여의 연구개발 성과로 얻어낸 인쇄전자 특허 기술이 하반기부터 ITO 센서 등의 전자부품 원천소재 양산에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자금조달로 새로운 부품소재 양산라인이 신설돼 인쇄전자 분야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반기 적자를 만회하고 PE사업은 TSM사업 보다 큰 매출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또 한번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증자가 성공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전자부품 원천소재 사업이 TSM에 이어 또 하나의 매출의 큰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하이셀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 아이컴포넌트 "TV시장 영토확장"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공급 확대

아이컴포넌트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재료인 배리어 코팅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플렉시블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회사 역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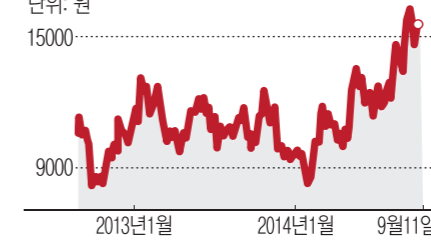
11일 아이컴포넌트 관계자는 "상반기 배리어 코팅 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제품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기반 분야뿐만 아니라 TV 시장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한경쟁으로 인해 기존 압출필름 시장은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고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습으로 아이컴포넌트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수년 전부터 이에 대비해 기술적으로 장벽이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골과 기술 발전에 힘써 왔다. 그에 따른 결과물이 바로 배리어 코팅기술이다.

특히 플렉시블 시장의 성장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 회사에 긍정적이다. 시장 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0.2%에 불과했던 플렉시블 스마트폰 비중은 내년엔 12%까지 늘고, 2018년에는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하 정보통신기술진흥

## 아이컴포넌트 주가 추이



## ITX시큐리티 추락... 가치투자도 손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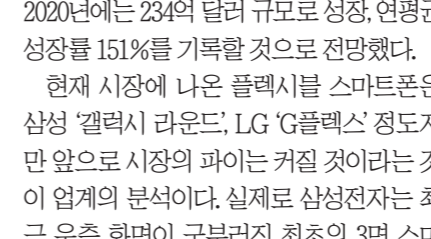
ITX시큐리티 주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그 후폭풍에 '가치투자'의 강자도 불리는 DS투자자문도 손실을 입고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S투자자문은 ITX시큐리티의 지분 8.48%(주식 등 69만834주와 증권 44만834주)를 전량 처분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DS투자자문은 앞서 지난 3월 ITX시큐리티 주식 46만520주(5.98%)를 주당 4360원에 처음 취득했다. 이후 투자를 지속해 8.48%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하지만 올 3월 5300원대였던 ITX시큐리티의 주가는 5월 이후 5000원대가 깨지면서 줄곧 하락했다. 결국 8월에는 3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5월 증가 기준으로 2335원까지 하락했다.

가치주에 투자해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DS투자자문도 보유 지분을 약 57억원에 매도해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탈출한 것이다.

ITX시큐리티는 디지털 보안장비 개발 업체다. 매출액은 최근 3년간(2011~2013년)

## ITX시큐리티 주가 추이



## 반년만에 5300원→2335원... DS자문, 10억 손실보며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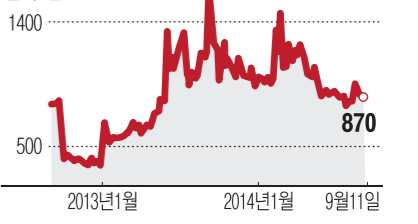
432억원에서 826억원으로 증가했고, 영업 손실에서 영업이익 10억원으로 실적이 좋아졌다.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등 재무비율도 개선됐다.

최근 주가하락은 너무 높은 주가수익 비율(PER)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ITX시큐리티의 PER는 11.1배이지만, 올해 1월 38.4배 수준이었다. 스몰캡 전문가들은 PER가 30배가 넘으면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지분 5% 이상 보유한 종목 중 올해 초 PER가 30배 이상인 종목은 액트와 ITX시큐리티 둘 뿐이었다.

황윤주 기자 hyj@

## 공시돌보기

### 중앙오션 주가 추이



### '중앙오션' 조선업 불황에 자동차 '블루오션' 넘보나

조선 기자재 업체 중앙오션이 선박을 넘어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진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오션은 오는 25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

중앙오션은 선박의 선수, 선미, 프로펠라보스, 엔진 등 9곳의 특수제작요건을 요하는 부분의 블록을 제작하는 업체다.

이 회사가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에 추가했다는 것은 당장의 사업을 실시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신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조선업계는 불황에 시달리는 가운데 업계 1위 국가 자리에 중국에 내준 상황이다.

해운·조선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57척, 114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지난 2009년 9월(46척, 57만 CGT) 이후 최저 수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누적 발주량은 2680만 CGT로 작년 동기(3538만 CGT)보다 24%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조선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39.5%, 한국 36.0%로 지난 2011년부터 지켜오던 1위 자리를 내줬다.

이 같은 조선업황 침체에 따라 중앙오션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시장을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은 3.8%로 특히 중국 시장의 성장률은 14%에 달하며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 시장도 급성장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6월 결산법인인 중앙오션의 작년(2013년 7월~올해 6월) 영업이익은 25억434만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2억9001만원으로 0.7%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7억2468만원으로 70.7%나 급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